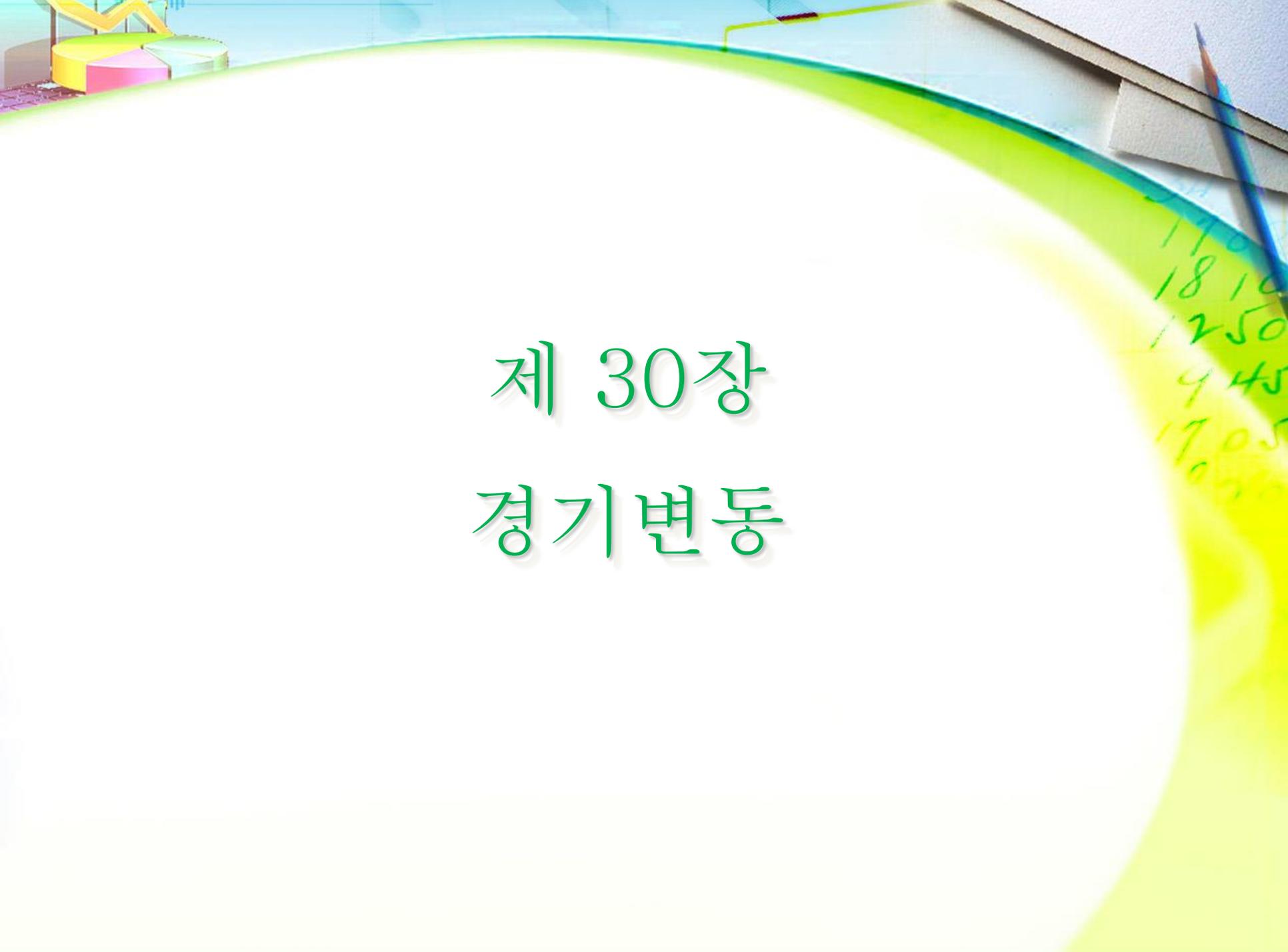


수험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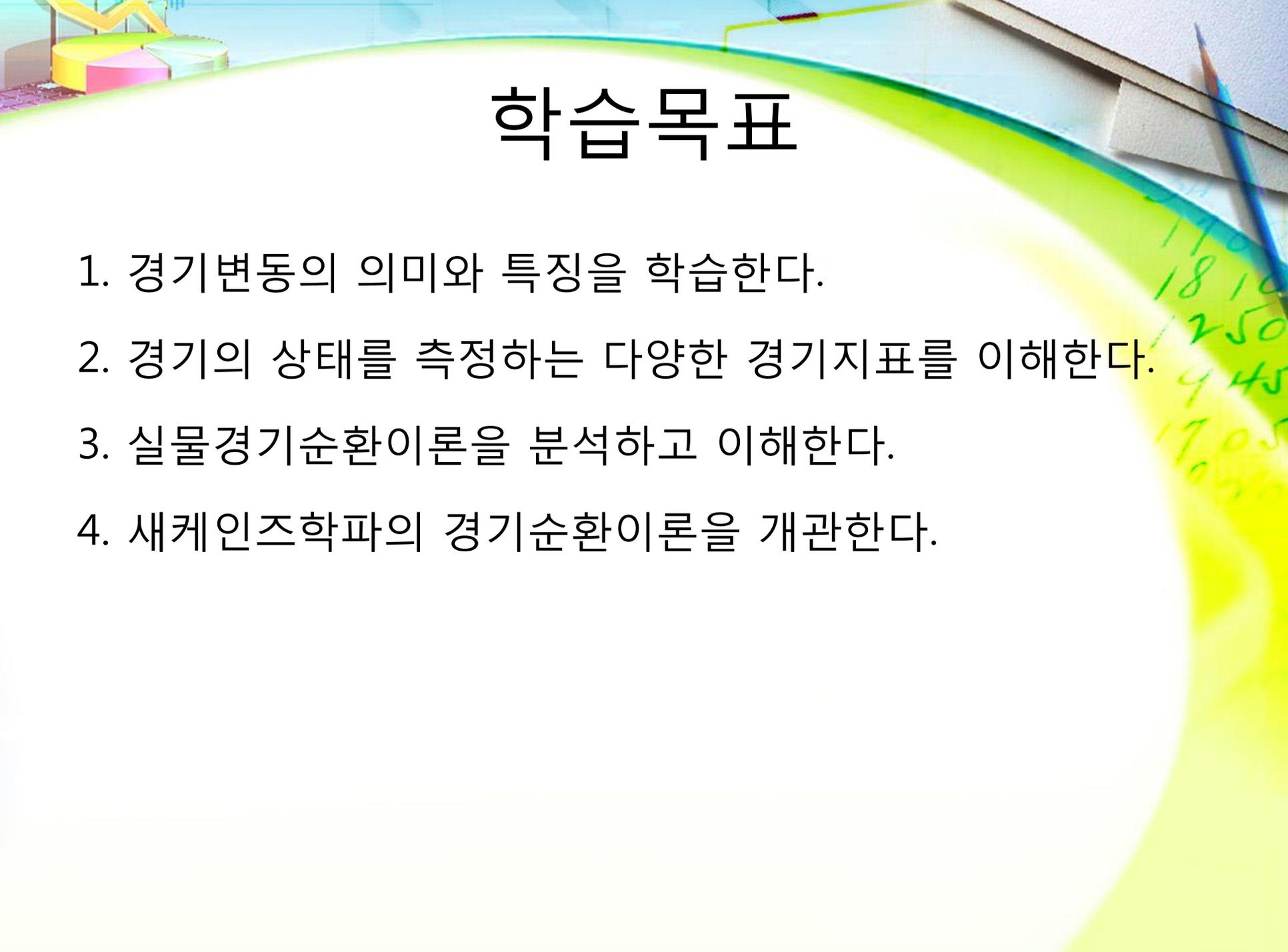
동국대학교
교수 이시영

※ 이 교과목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고지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large white circle on a light green gradient. In the top-left corner, there are colorful 3D bar charts. In the top-right corner, there is a stack of papers and a blue pencil.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yellow circular area containing handwritten numbers in green ink.

제 30장 경기변동

170
18 10
1250
9 45
17 0.5
10 10



학습목표

1. 경기변동의 의미와 특징을 학습한다.
2. 경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경기지표를 이해한다.
3. 실물경기순환이론을 분석하고 이해한다.
4. 새케인즈학파의 경기순환이론을 개관한다.

학습순서

- 경기변동의 정의와 특징
- 경기변동의 측정
- 실물경기순환이론
-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론

30-1. 경기변동의 정의와 특징

- (1) 경기변동(business cycle)의 정의 : 경제활동의 상승과 하강의 반복현상. 경기순환의 과정은 경기의 팽창, 후퇴, 위축, 회복으로 나타나며, 반복적이지만 대체로 비주기적이다.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 갭이 양이면 호황이며, GDP 갭이 음이면 불황이다.
- (2) 경기변동의 특징 : 경기변동은 순환성(cyclicality), 반복성(recurrency), 공행성(comovement), 지속성(persistency)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공행성이란 상호관련된 변수들이 공동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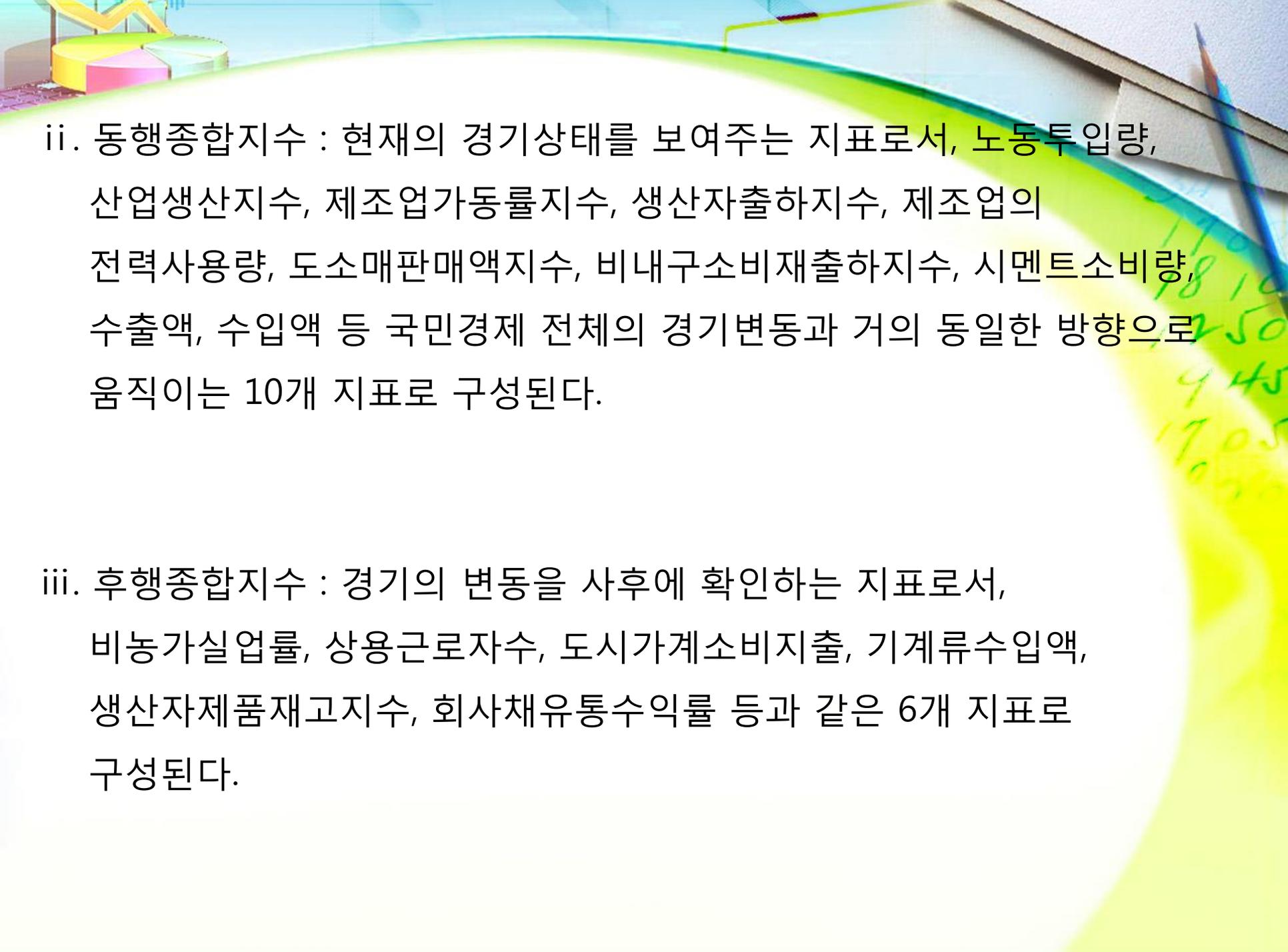
(3) 경기변동의 분류

- ① 소순환 : 2~4년의 주기로 나타나는 순환인데, 키친순환(Kitchin cycle)이라 하며 원인은 재고의 변동과 금리 및 물가의 변동이다.
- ② 주순환 : 7~11년의 주기를 보이는 순환이며, 주글러순환(Juglar cycle)이라고 한다. 원인은 투자재 또는 자본재의 수명과 관계가 있으며, 설비투자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으로 알려져 있다.
- ③ 장기순환 : 15~29년의 주기를 가지는 쿠즈네츠순환(Kuznets cycle)과 40~60년의 주기의 콘트라티에프순환(Kontratief cycle)을 뜻한다. 쿠즈네츠순환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으며, 콘트라티에프순환은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30-2. 경기변동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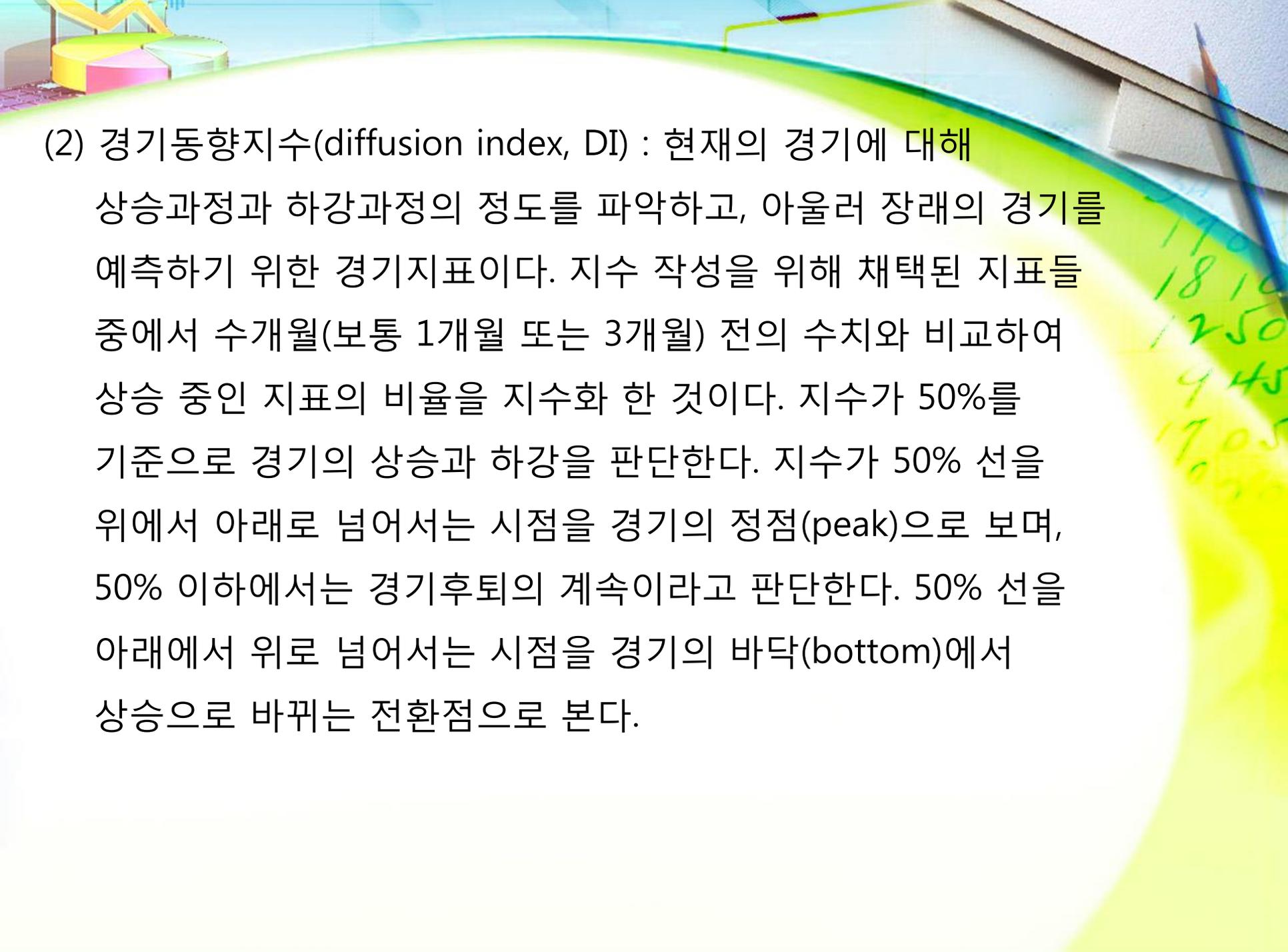
(1) 경기종합지수(CI) : 경기변동의 국면, 전환점과 진폭, 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서, 주요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지수형태로 나타낸 것. 통계청에서 매달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i. 선행종합지수 : 앞으로의 경기동향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제조업 입직자수/이직자수, 중간재출하지수, 내구소비재출하지수, 건축허가면적, 건설용중간재생산지수, 기계수주액,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총유동성(Lf), 수출신용장(L/C)내도액, 수출용원자재수입액 등과 같이 앞으로 일어날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10개 지표의 움직임을 종합하여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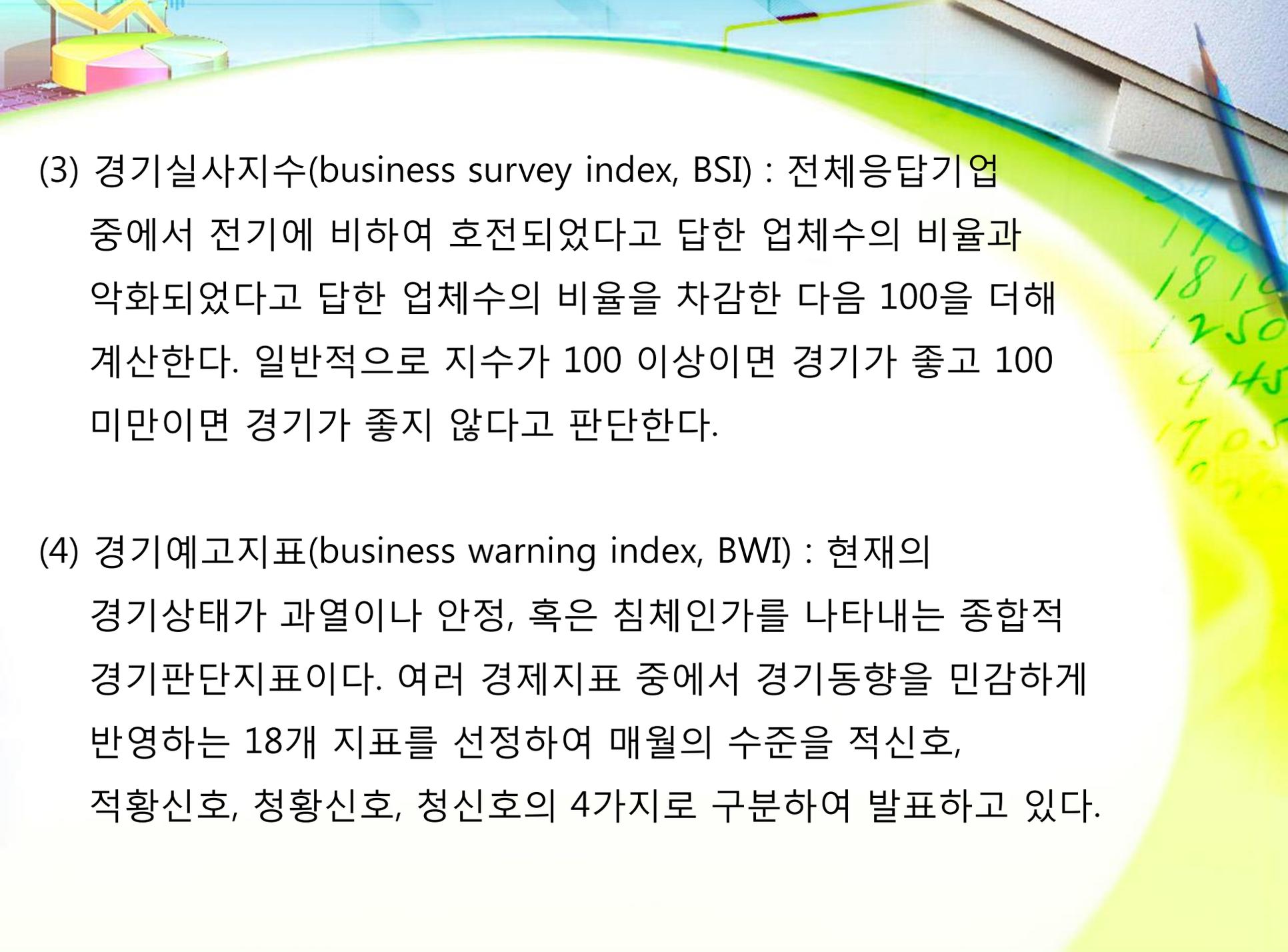


ii. 동행종합지수 : 현재의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노동투입량, 산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생산자출하지수, 제조업의 전력사용량, 도소매판매액지수, 비내구소비재출하지수, 시멘트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등 국민경제 전체의 경기변동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10개 지표로 구성된다.

iii. 후행종합지수 : 경기의 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지표로서, 비농가실업률, 상용근로자수, 도시가계소비지출, 기계류수입액, 생산자제품재고지수, 회사채유통수익률 등과 같은 6개 지표로 구성된다.



(2) 경기동향지수(diffusion index, DI) : 현재의 경기에 대해 상승과정과 하강과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장래의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경기지표이다. 지수 작성을 위해 채택된 지표들 중에서 수개월(보통 1개월 또는 3개월) 전의 수치와 비교하여 상승 중인 지표의 비율을 지수화 한 것이다. 지수가 50%를 기준으로 경기의 상승과 하강을 판단한다. 지수가 50% 선을 위에서 아래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정점(peak)으로 보며, 50% 이하에서는 경기후퇴의 계속이라고 판단한다. 50% 선을 아래에서 위로 넘어서는 시점을 경기의 바닥(bottom)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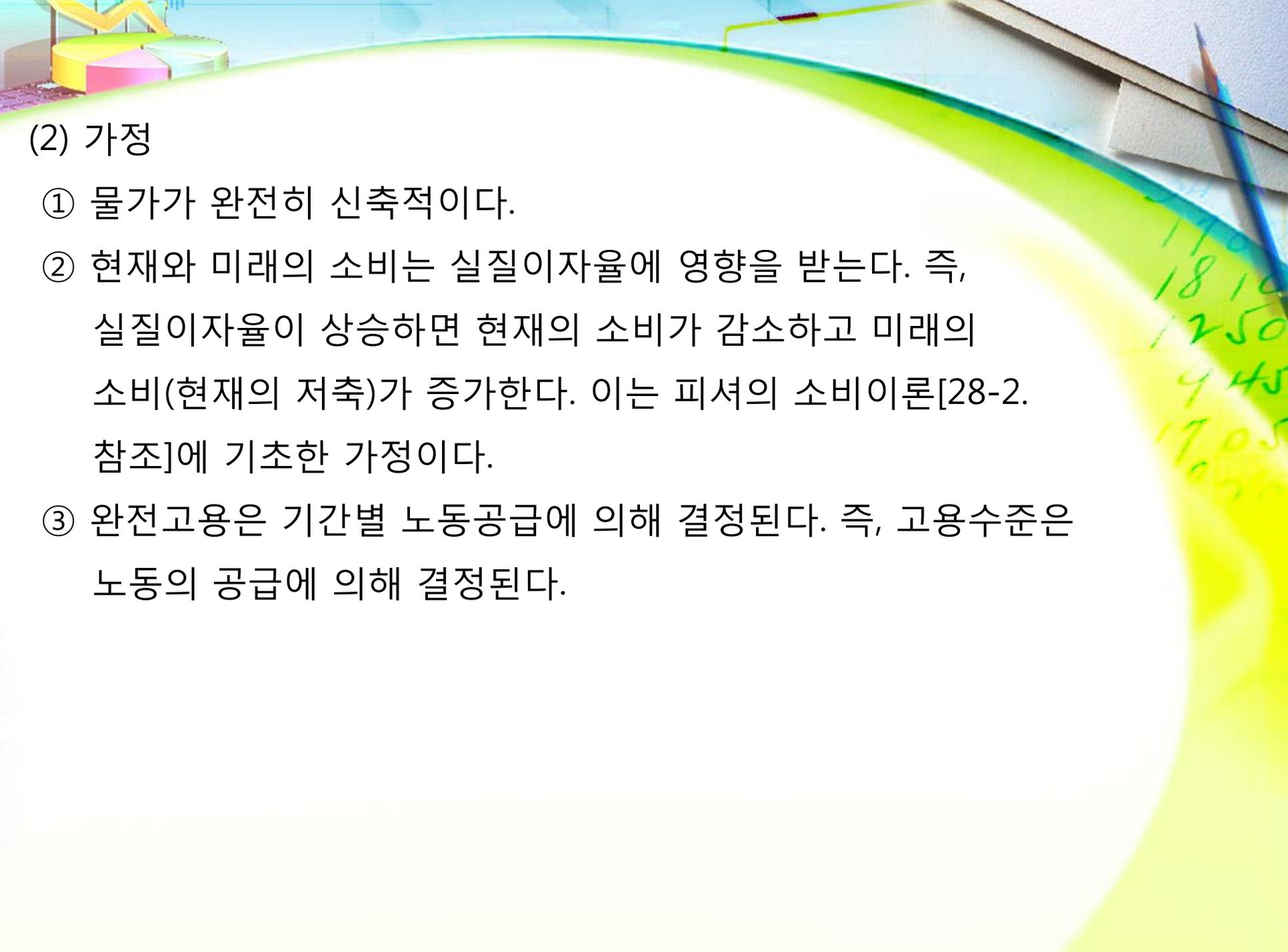


(3)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 전체응답기업 중에서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4) 경기에고지표(business warning index, BWI) : 현재의 경기상태가 과열이나 안정, 혹은 침체인가를 나타내는 종합적 경기판단지표이다. 여러 경제지표 중에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18개 지표를 선정하여 매월의 수준을 적신호, 적황신호, 청황신호, 청신호의 4가지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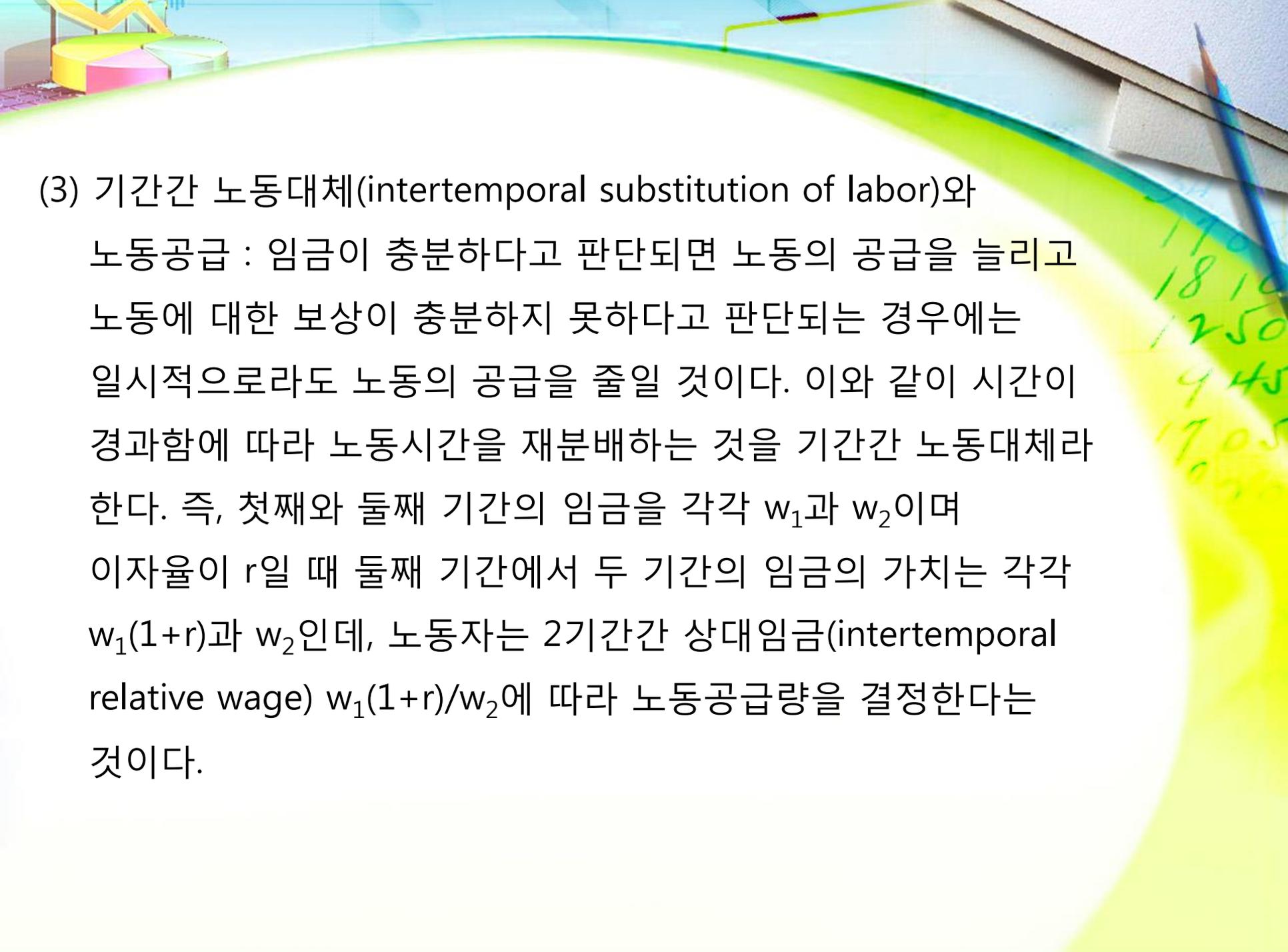
30-3. 실물경기순환이론

(1) 실물경기순환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의 의의 : 이 이론은 완전고용을 가정한 고전학파 거시경제모형의 가정을 만족하면서 단기적 경기변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통화량이나 물가와 같은 명목변수들이 생산수준이나 고용수준과 같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고전학파의 이분법(dichotomy)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새고전학파의 경기순환이론으로서 실물경기변동이론이라고도 한다. 정책의 시행 또는 기술진보 등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충격이 경기변동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며, 전통적 시각과는 달리 경기변동이 추세에서 벗어난 불균형적 현상이 아니라 경기변동이 거시경제 균형상태의 변동이라는 획기적 가설에 의한 이론이다.



(2) 가정

- ①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다.
- ② 현재와 미래의 소비는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즉,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의 소비가 감소하고 미래의 소비(현재의 저축)가 증가한다. 이는 피셔의 소비이론[28-2. 참조]에 기초한 가정이다.
- ③ 완전고용은 기간별 노동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고용수준은 노동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3) 기간간 노동대체(intertemporal substitution of labor)와
노동공급 : 임금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의 공급을 늘리고
노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라도 노동의 공급을 줄일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재분배하는 것을 기간간 노동대체라
한다. 즉, 첫째와 둘째 기간의 임금을 각각 w_1 과 w_2 이며
이자율이 r 일 때 둘째 기간에서 두 기간의 임금의 가치는 각각
 $w_1(1+r)$ 과 w_2 인데, 노동자는 2기간간 상대임금(intertemporal
relative wage) $w_1(1+r)/w_2$ 에 따라 노동공급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4) 모형의 구조 : 이 이론은 고전학파 체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총공급곡선 LAS는 완전고용수준의 생산량 Y_f 에서 수직선이 되며, LM곡선은 반드시 $Y=Y_f$ 에서 IS곡선과 만난다. 그리고 총공급은 노동의 고용수준 N , 자본 K , 기술수준 T 에 의해 결정되며, 노동의 공급량 N^S 는 두 기간의 상대임금에 의해 결정되고 고용수준 N 은 전적으로 노동공급 N^S 에 의해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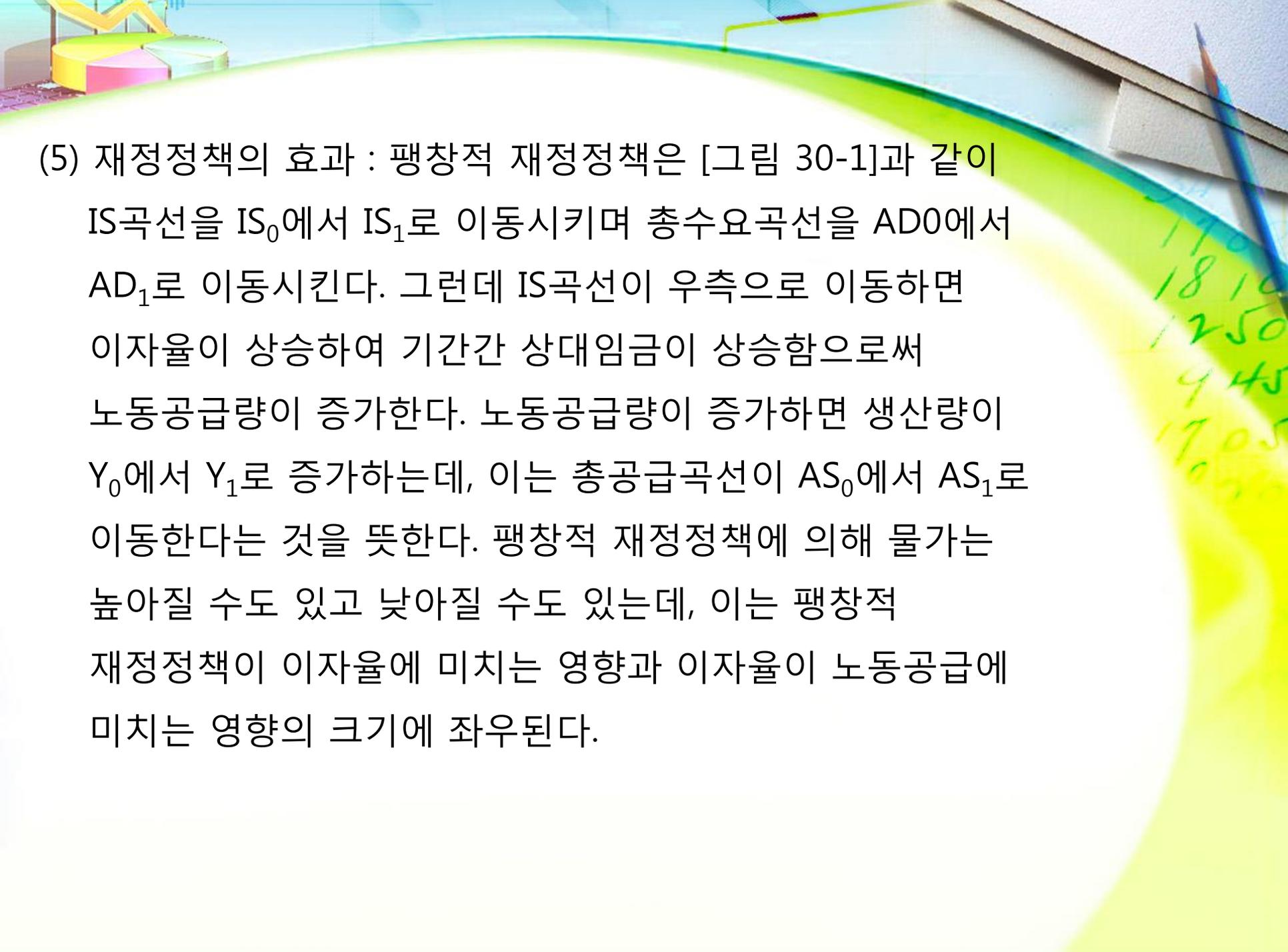
$$\text{IS곡선 : } Y = C(Y-T, r) + I(r) + G$$

$$\text{LM곡선 : } \frac{M^S}{P} = L(Y, r)$$

$$\text{총공급 : } Y = f(N, K,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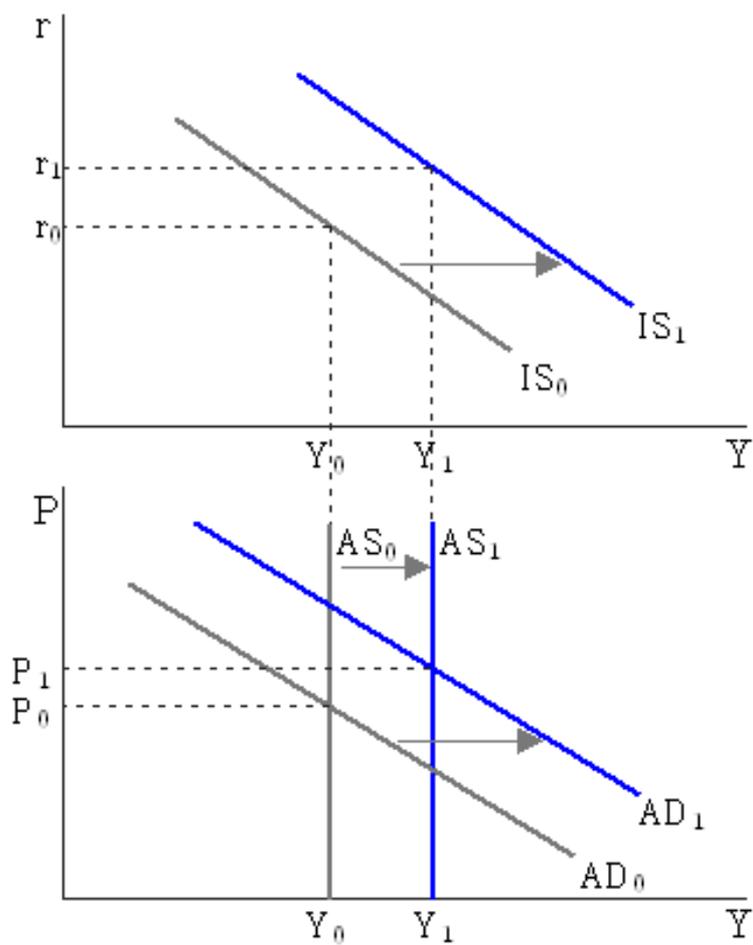
$$\text{노동공급 : } N = N^S = N^S \left[\frac{w_1(1+r)}{w_2} \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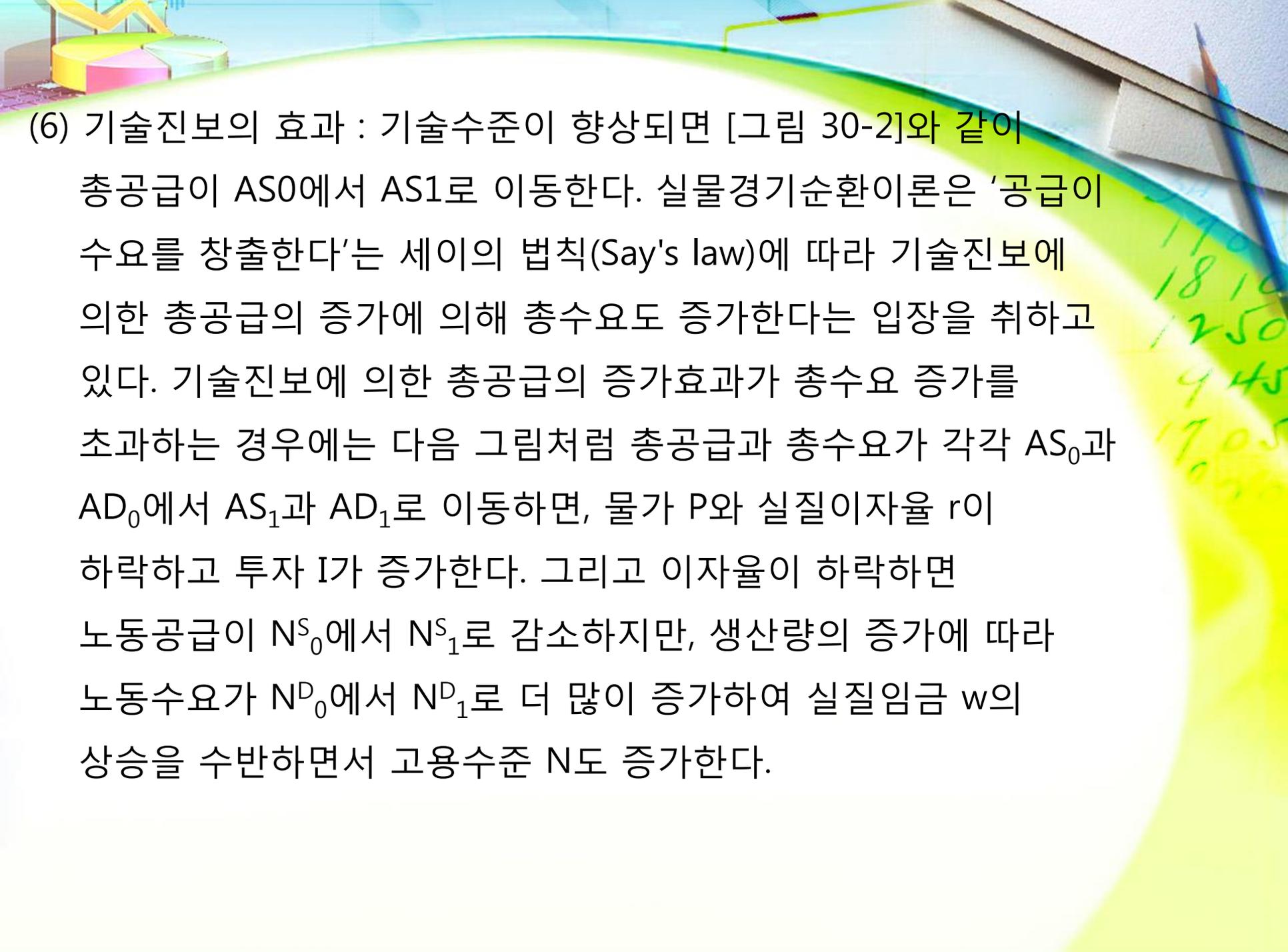
M^S : 통화량 I : 투자 G : 정부구매 P : 물가



(5) 재정정책의 효과 : 팽창적 재정정책은 [그림 30-1]과 같이 IS곡선을 IS_0 에서 IS_1 로 이동시키며 총수요곡선을 AD_0 에서 AD_1 로 이동시킨다. 그런데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기간간 상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Y_0 에서 Y_1 로 증가하는데, 이는 총공급곡선이 AS_0 에서 AS_1 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팽창적 재정정책에 의해 물가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데, 이는 팽창적 재정정책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과 이자율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좌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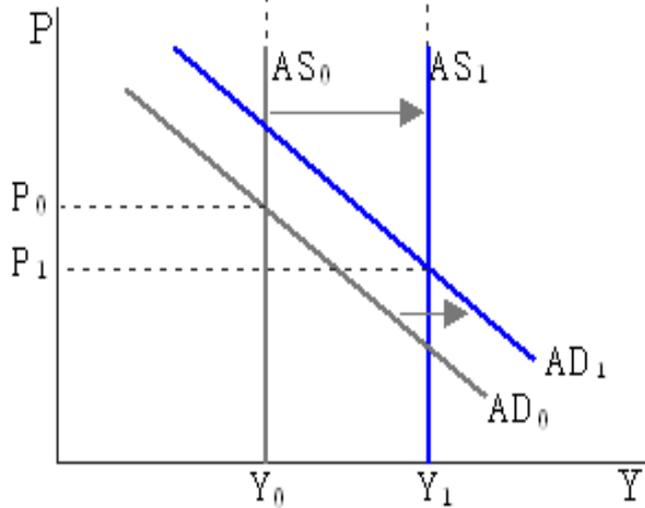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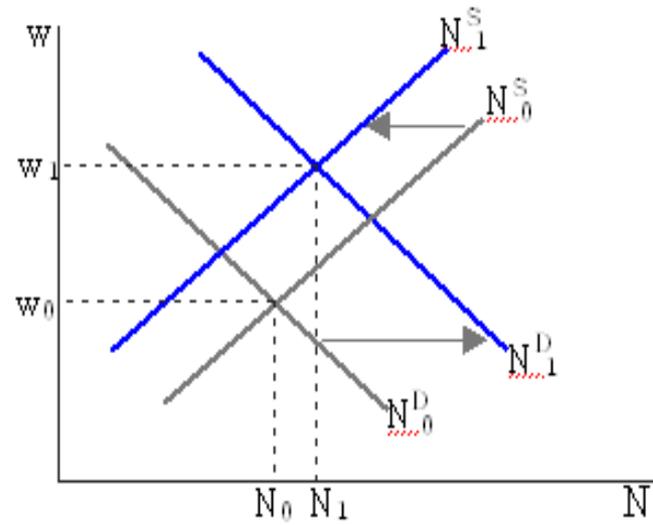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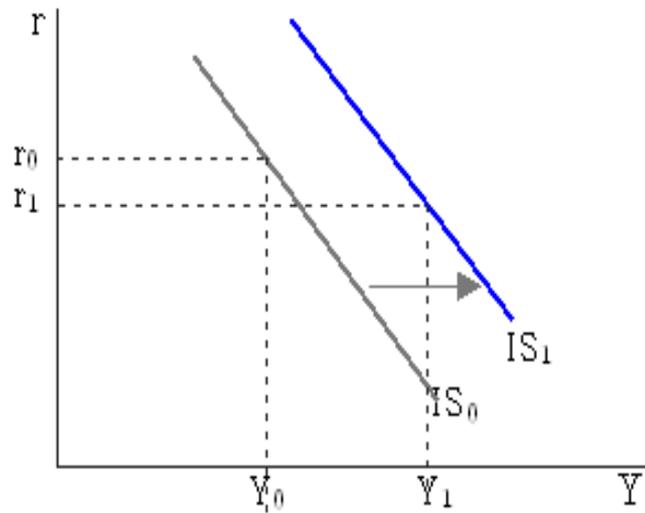
[그림 30-1] 실물경기순환모형에서의 평창적 재정정책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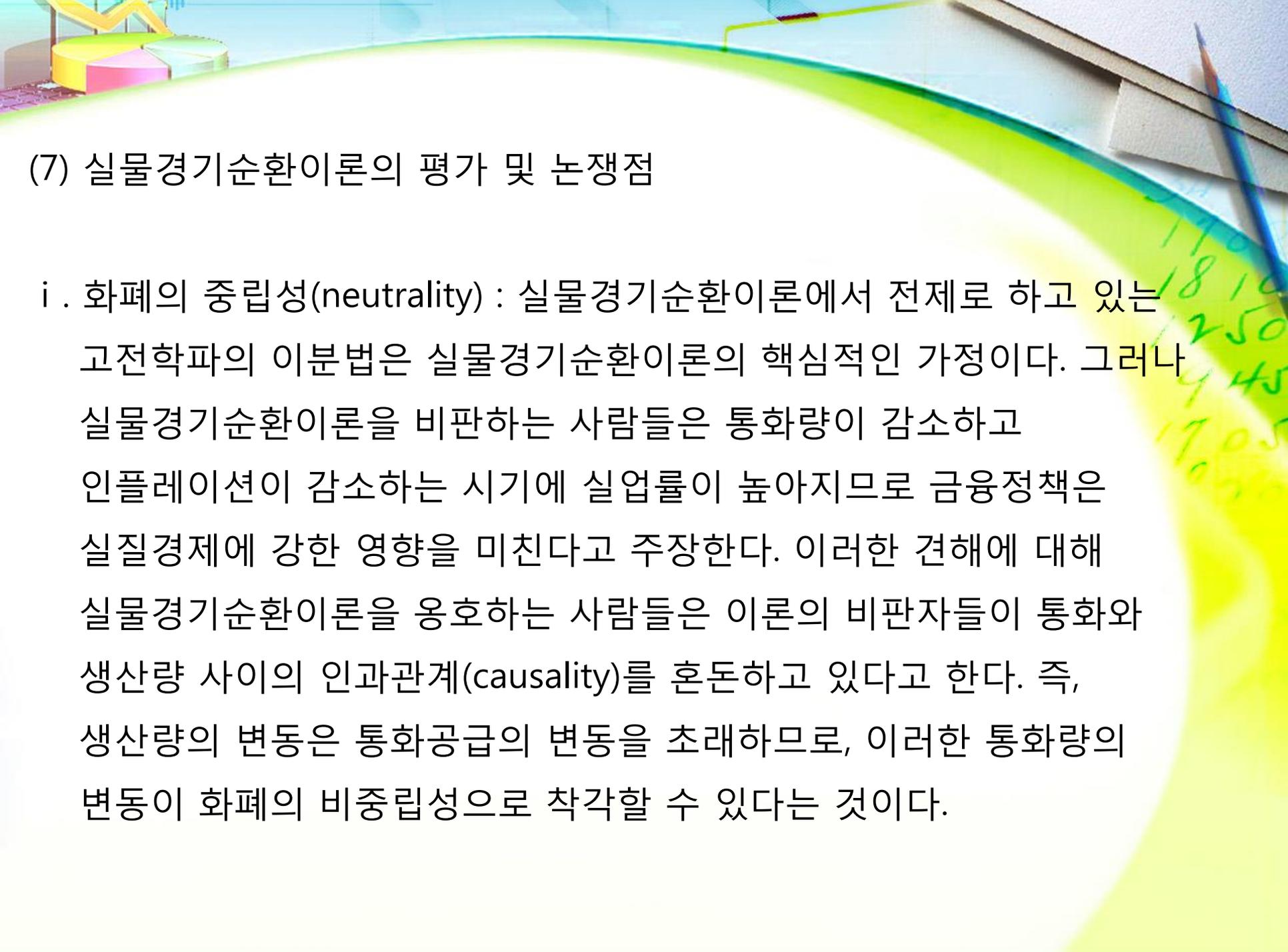




(6) 기술진보의 효과 :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그림 30-2]와 같이 총공급이 AS_0 에서 AS_1 로 이동한다. 실물경기순환이론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세이의 법칙(Say's law)에 따라 기술진보에 의한 총공급의 증가에 의해 총수요도 증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술진보에 의한 총공급의 증가효과가 총수요 증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그림처럼 총공급과 총수요가 각각 AS_0 과 AD_0 에서 AS_1 과 AD_1 로 이동하면, 물가 P 와 실질이자율 r 이 하락하고 투자 I 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N^S_0 에서 N^S_1 로 감소하지만, 생산량의 증가에 따라 노동수요가 N^D_0 에서 N^D_1 로 더 많이 증가하여 실질임금 w 의 상승을 수반하면서 고용수준 N 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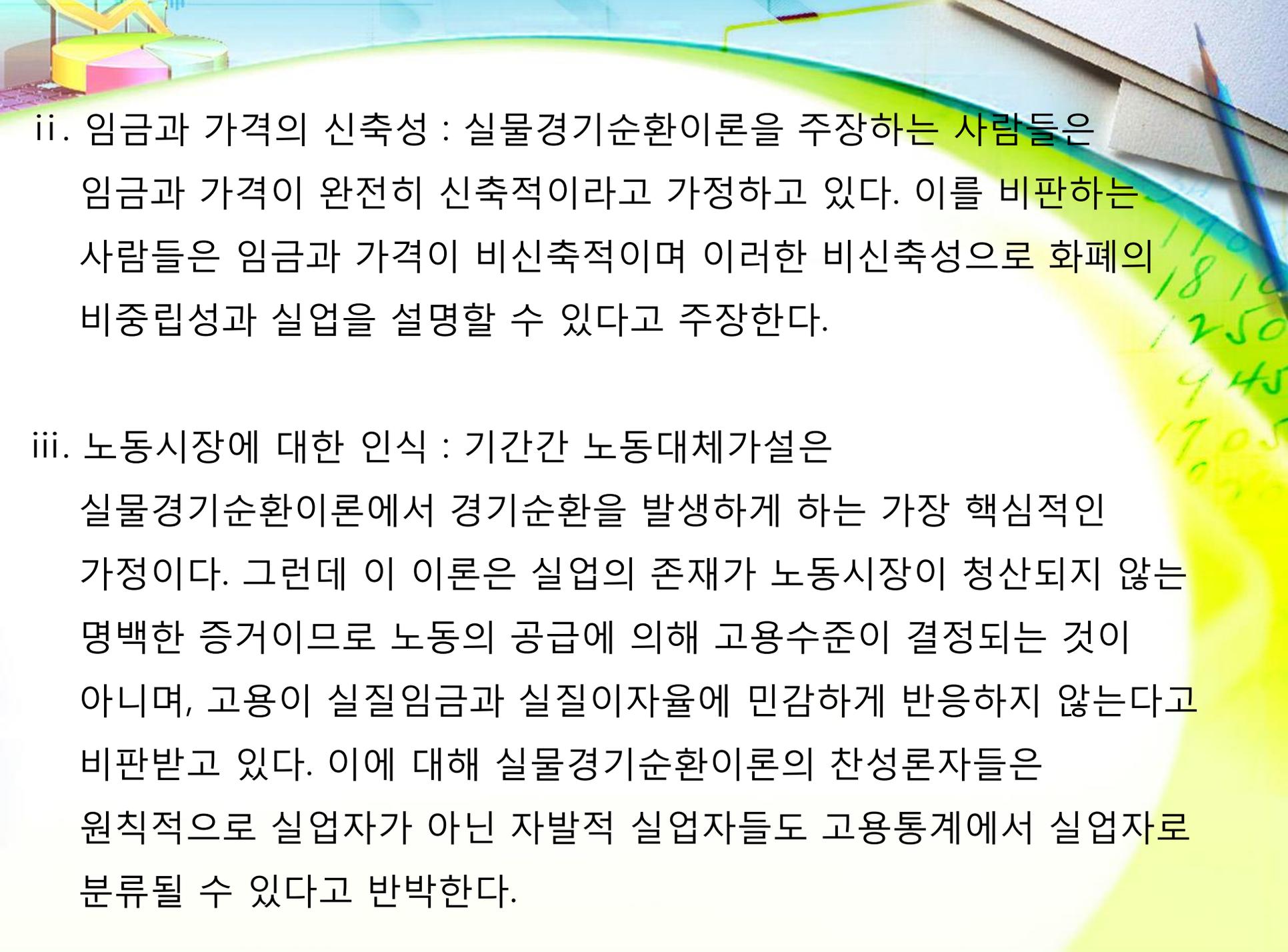
[그림 30-2] 기술진보와 경기변동





(7) 실물경기순환이론의 평가 및 논쟁점

- i.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 : 실물경기순환이론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고전학파의 이분법은 실물경기순환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실물경기순환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통화량이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시기에 실업률이 높아지므로 금융정책은 실질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실물경기순환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론의 비판자들이 통화와 생산량 사이의 인과관계(causality)를 혼돈하고 있다고 한다. 즉, 생산량의 변동은 통화공급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통화량의 변동이 화폐의 비중립성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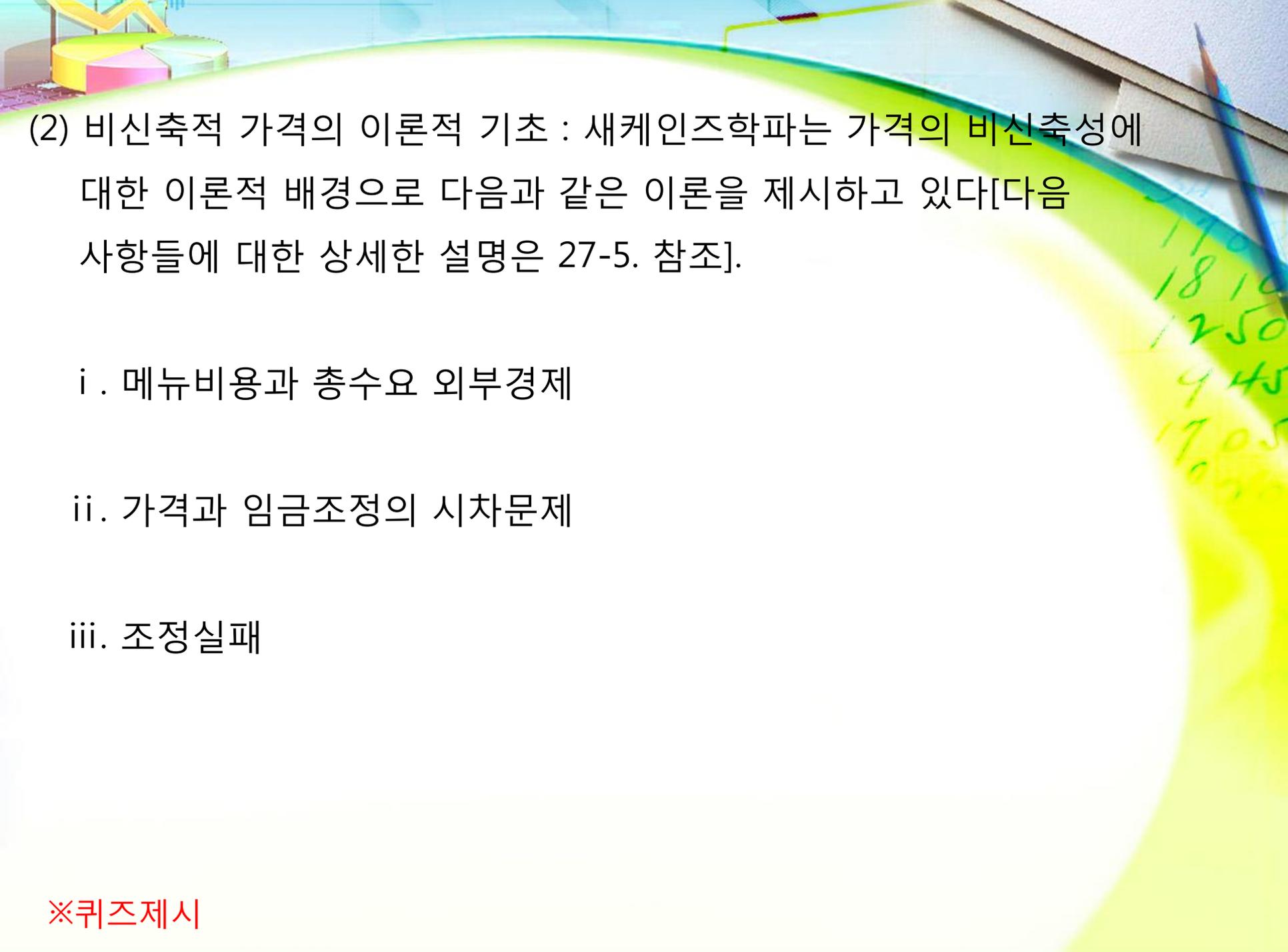


ii. 임금과 가격의 신축성 : 실물경기순환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임금과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임금과 가격이 비신축적이며 이러한 비신축성으로 화폐의 비중립성과 실업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iii.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 : 기간간 노동대체가설은 실물경기순환이론에서 경기순환을 발생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정이다. 그런데 이 이론은 실업의 존재가 노동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명백한 증거이므로 노동의 공급에 의해 고용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이 실질임금과 실질이자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실물경기순환이론의 찬성론자들은 원칙적으로 실업자가 아닌 자발적 실업자들도 고용통계에서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30-4. 새케인즈학파의 경기변동론

- (1)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School) 경기변동론의 의의 :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거시경제 균형상태의 변동이라는 실물경기순환이론에 찬동하지 않고, 생산량 및 고용의 단기적 변동은 자연율에서 이탈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과 가격이 비신축적으로 서서히 조절되기 때문이다. 새케인즈학파는 임금과 가격의 비신축성 때문에 경기변동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기공급곡선이 우상향이므로 총수요와 총공급의 충격요인들이 경기변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새케인즈학파의 견해이다.



(2) 비신축적 가격의 이론적 기초 : 새케인즈학파는 가격의 비신축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다음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7-5. 참조].

i. 메뉴비용과 총수요 외부경제

ii. 가격과 임금조정의 시차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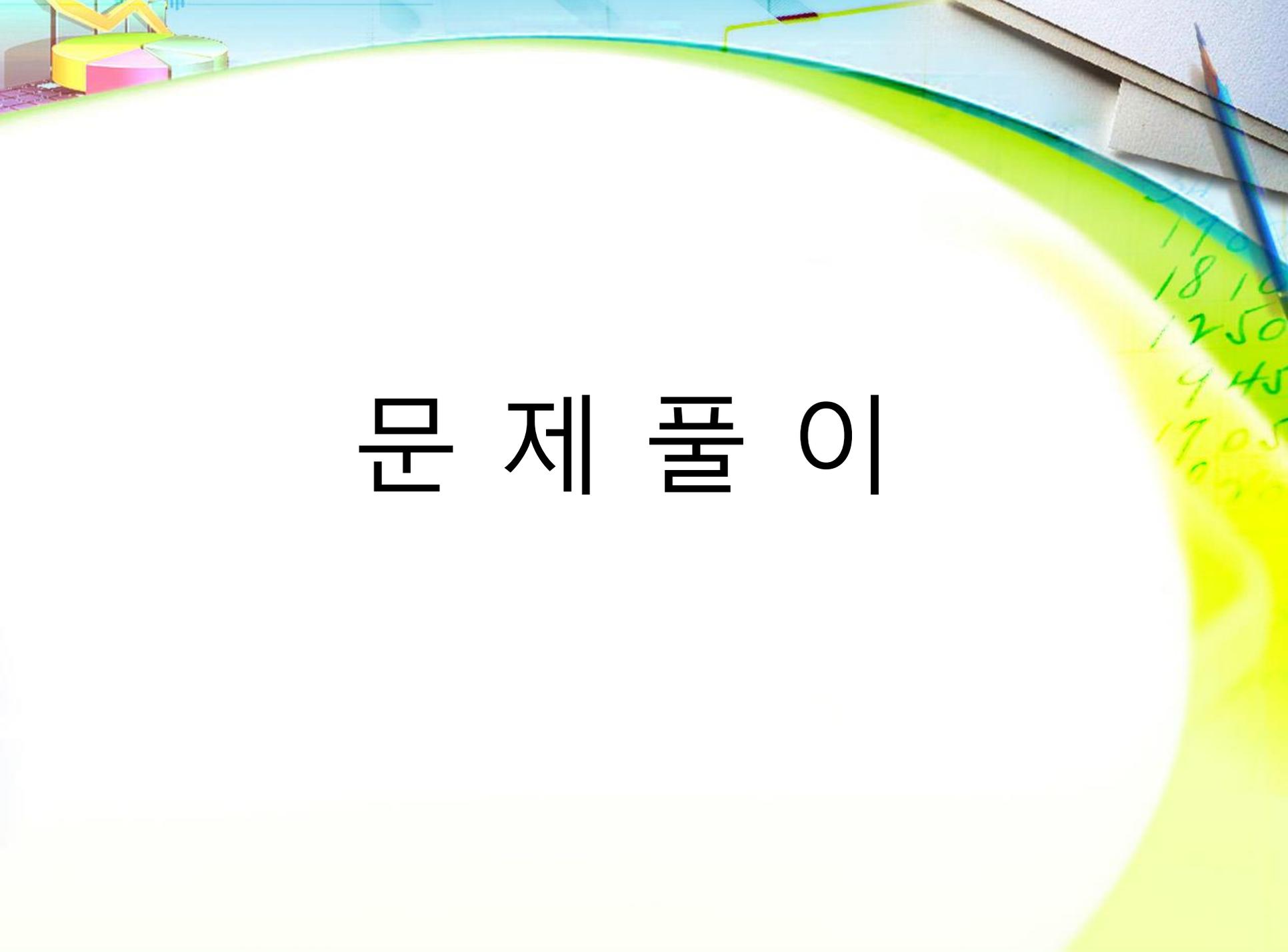
iii. 조정실패

※퀴즈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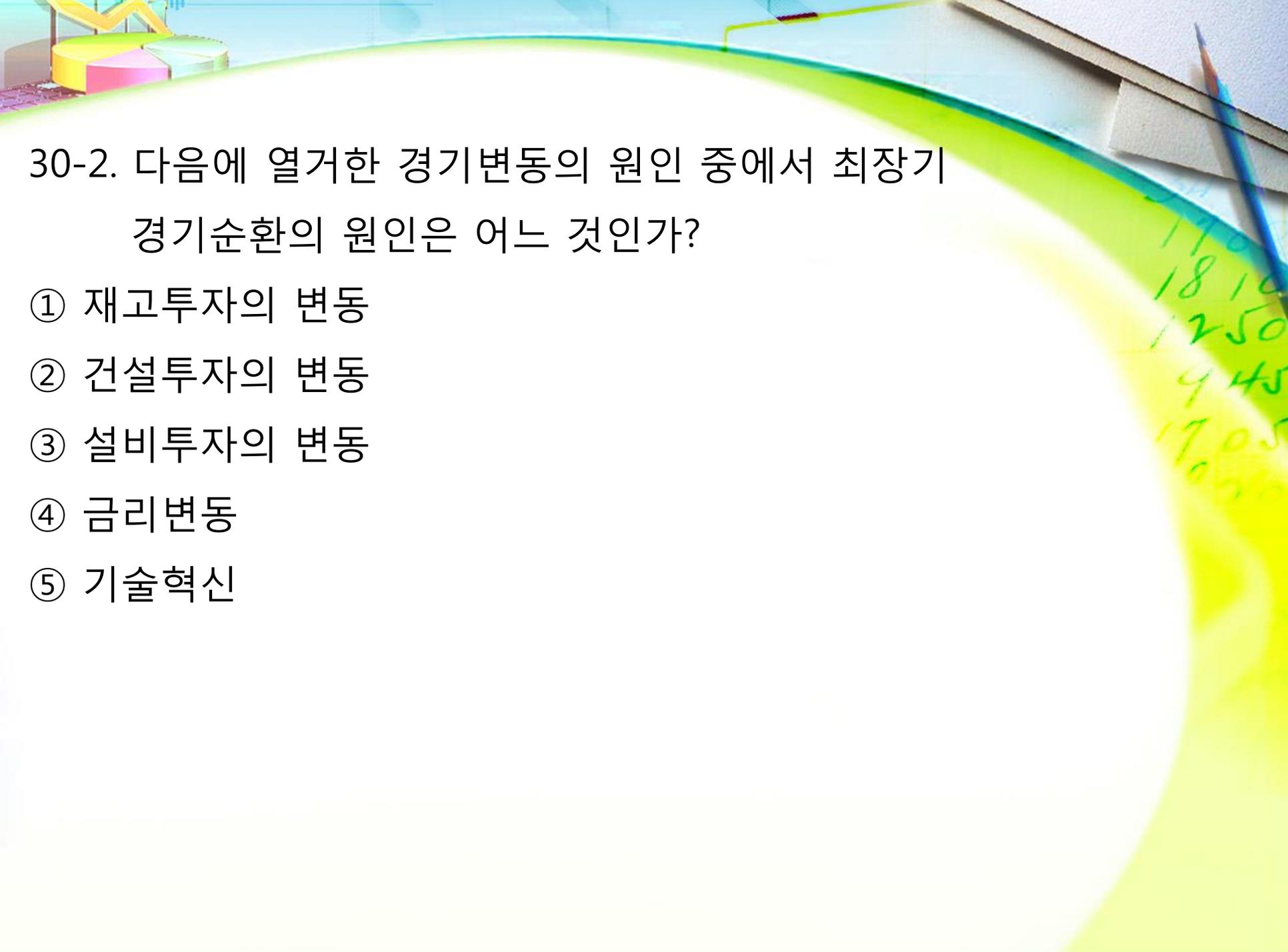
퀴즈(정답 3)

다음 중에서 실물경기순환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의 가정이 아닌 것은?

- ①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다.
- ② 소비는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 ③ 고용수준은 노동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④ 노동의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공급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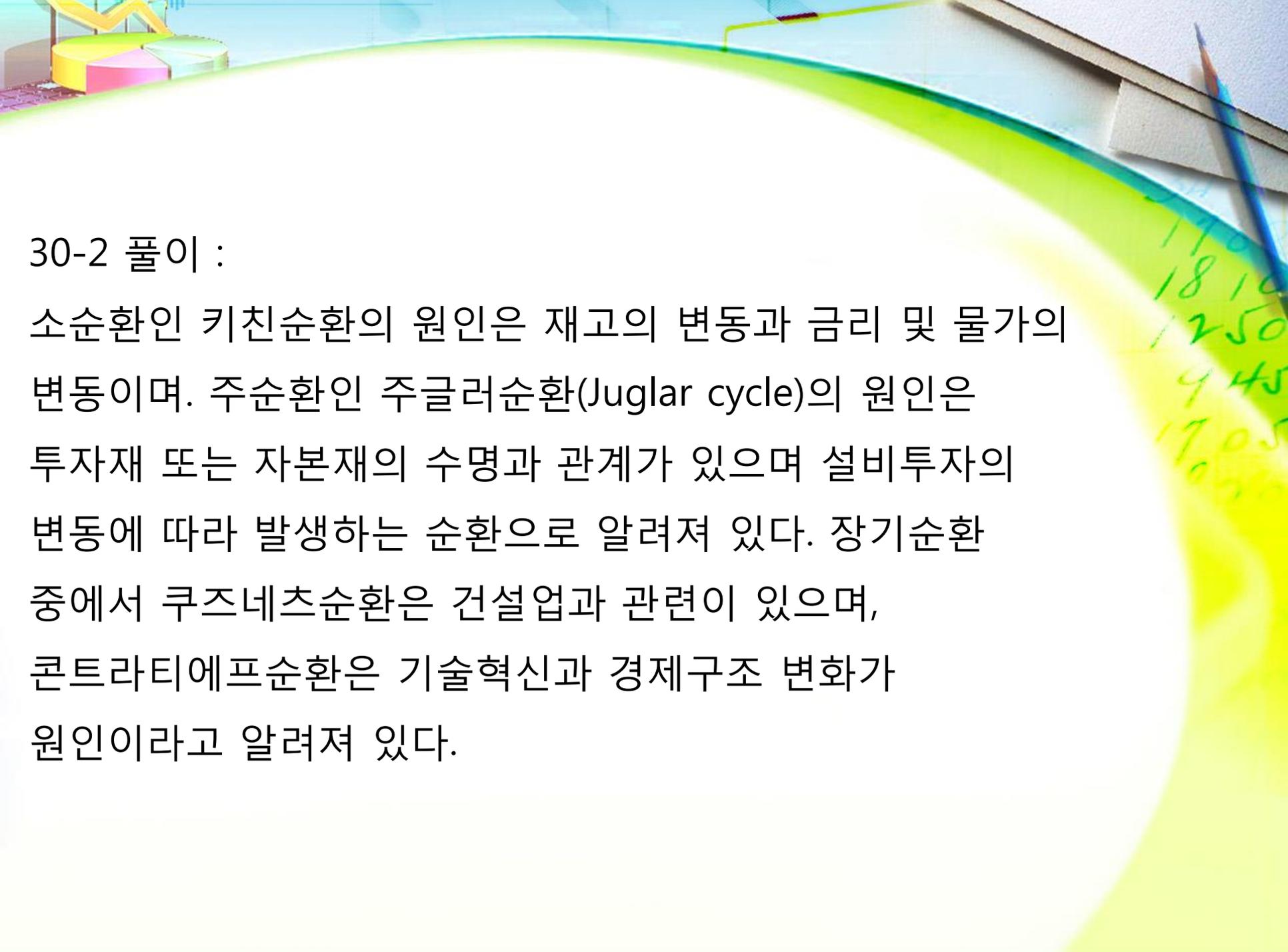


문 제 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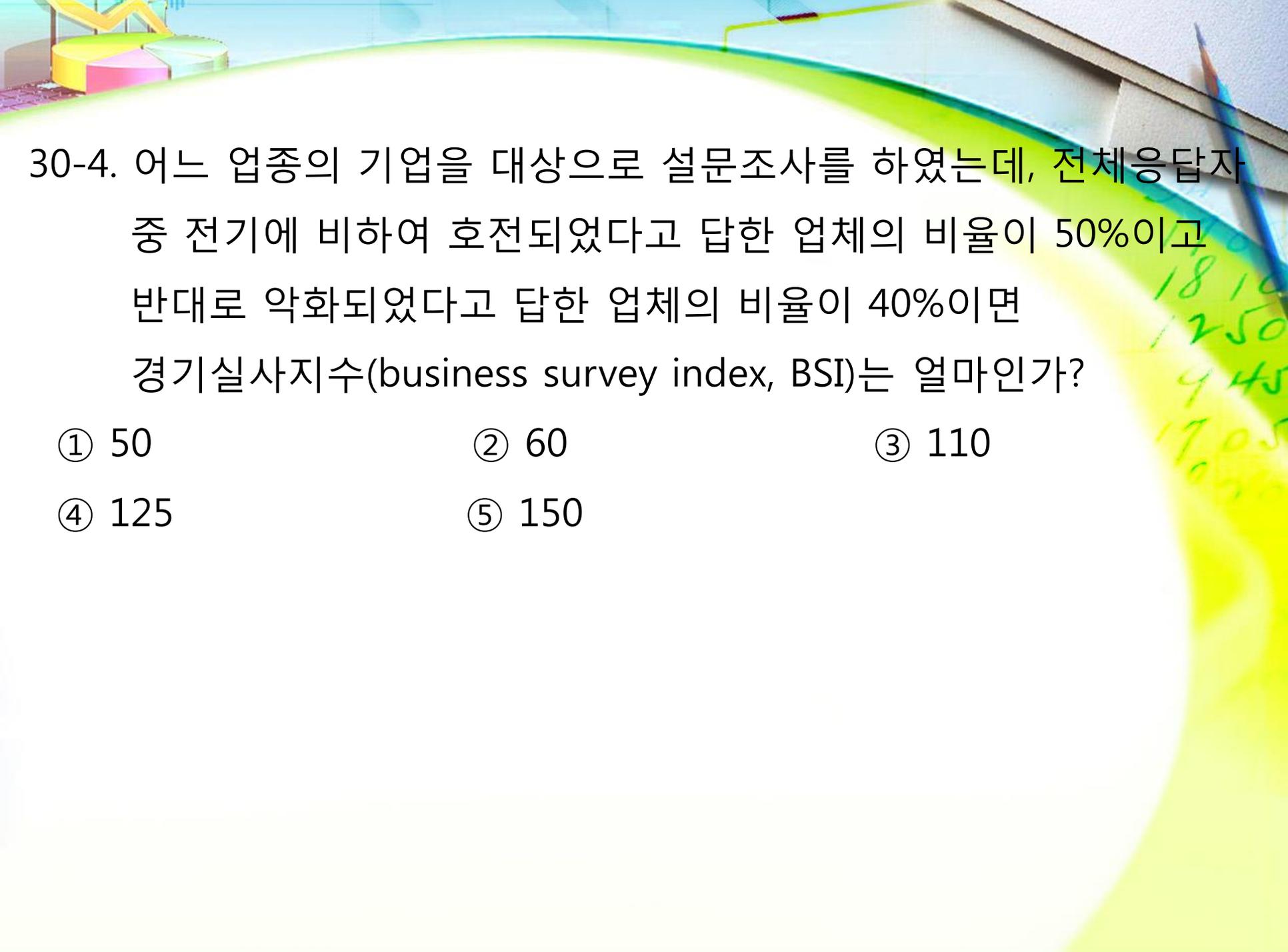
30-2. 다음에 열거한 경기변동의 원인 중에서 최장기 경기순환의 원인은 어느 것인가?

- ① 재고투자의 변동
- ② 건설투자의 변동
- ③ 설비투자의 변동
- ④ 금리변동
- ⑤ 기술혁신



30-2 풀이 :

소순환인 키친순환의 원인은 재고의 변동과 금리 및 물가의 변동이며. 주순환인 주글러순환(Juglar cycle)의 원인은 투자재 또는 자본재의 수명과 관계가 있으며 설비투자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순환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순환 중에서 쿠즈네츠순환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으며, 콘트라티에프순환은 기술혁신과 경제구조 변화가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30-4. 어느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이 50%이고 반대로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이 40%이면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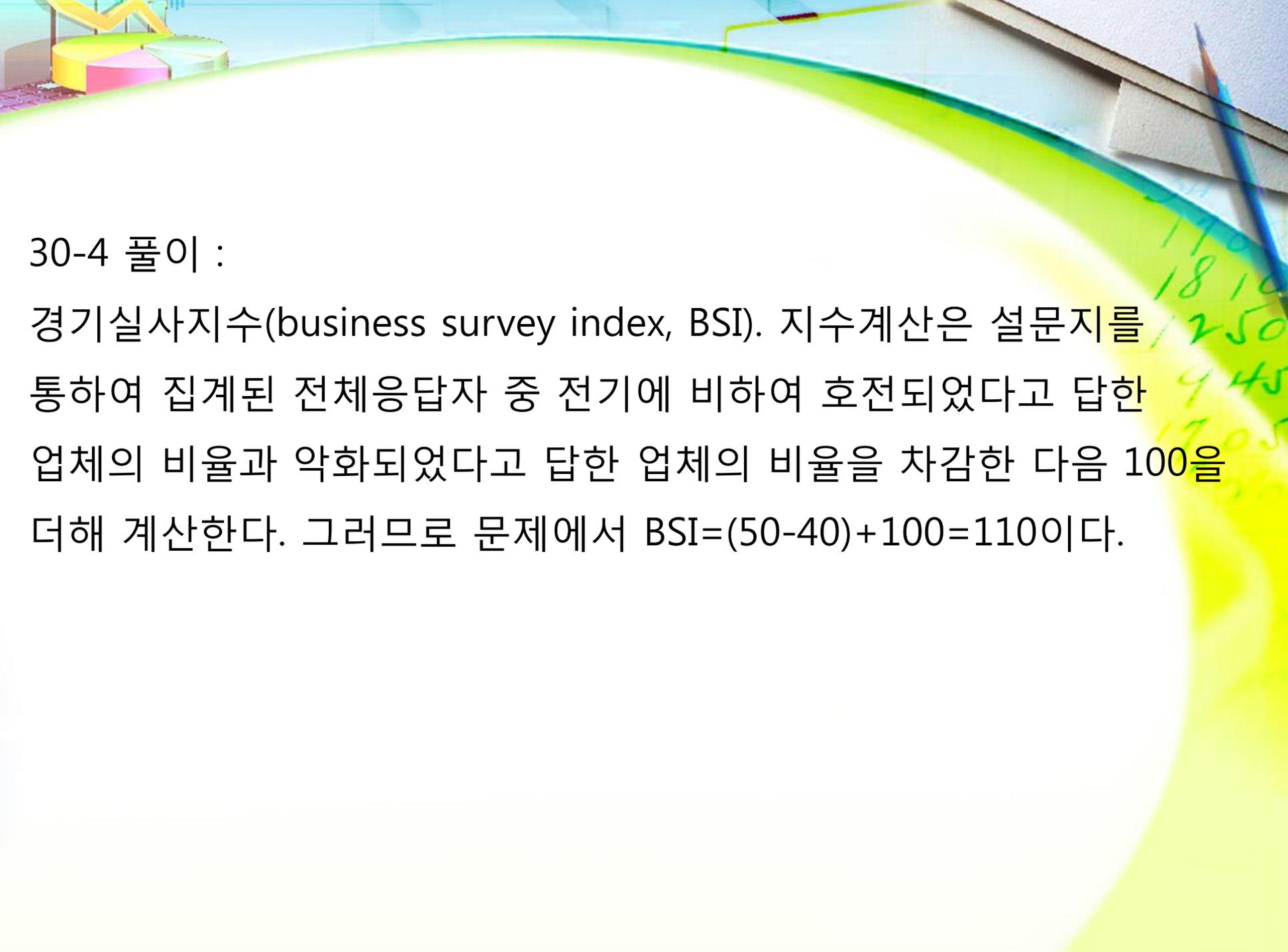
① 50

② 60

③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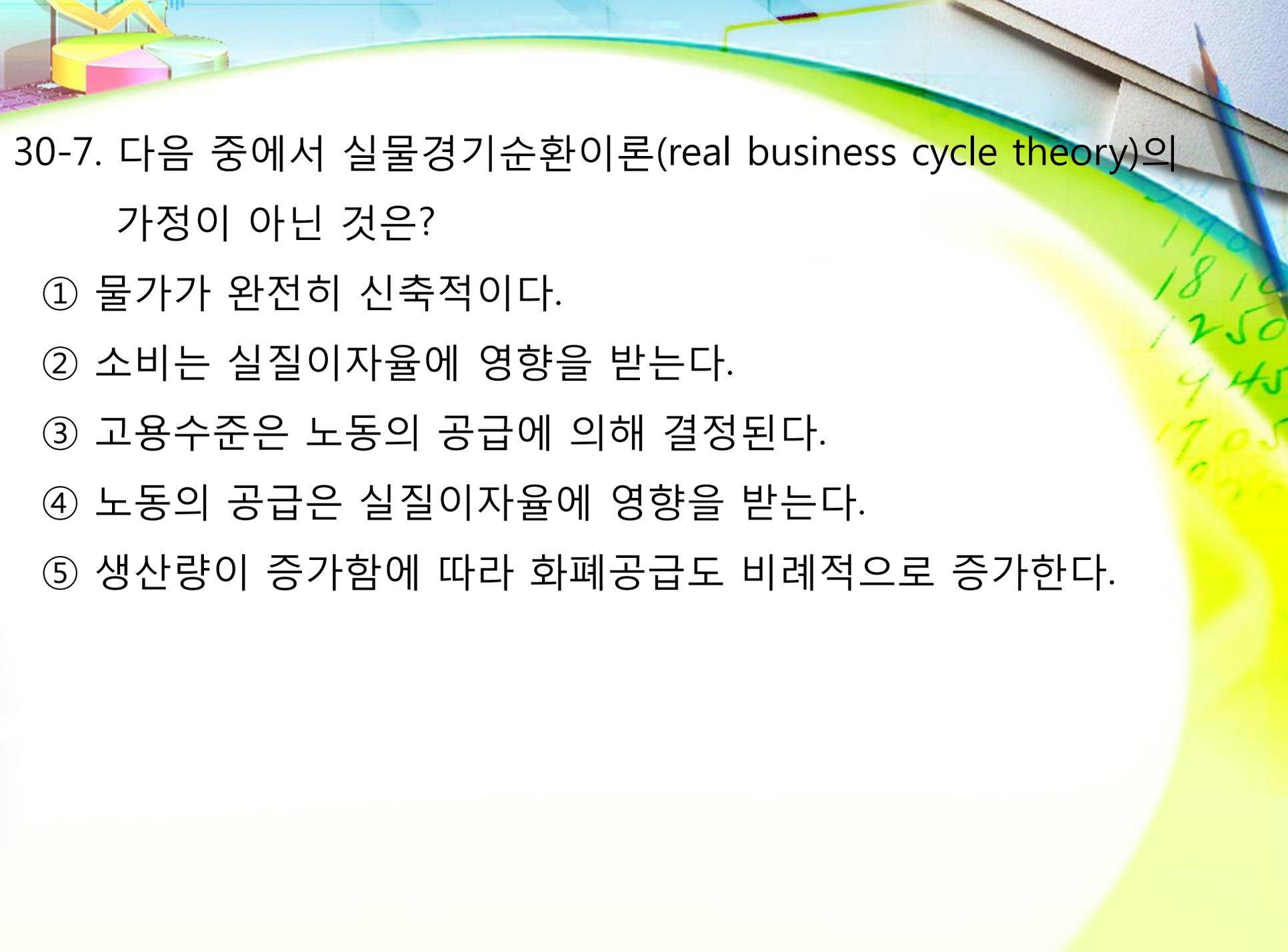
④ 125

⑤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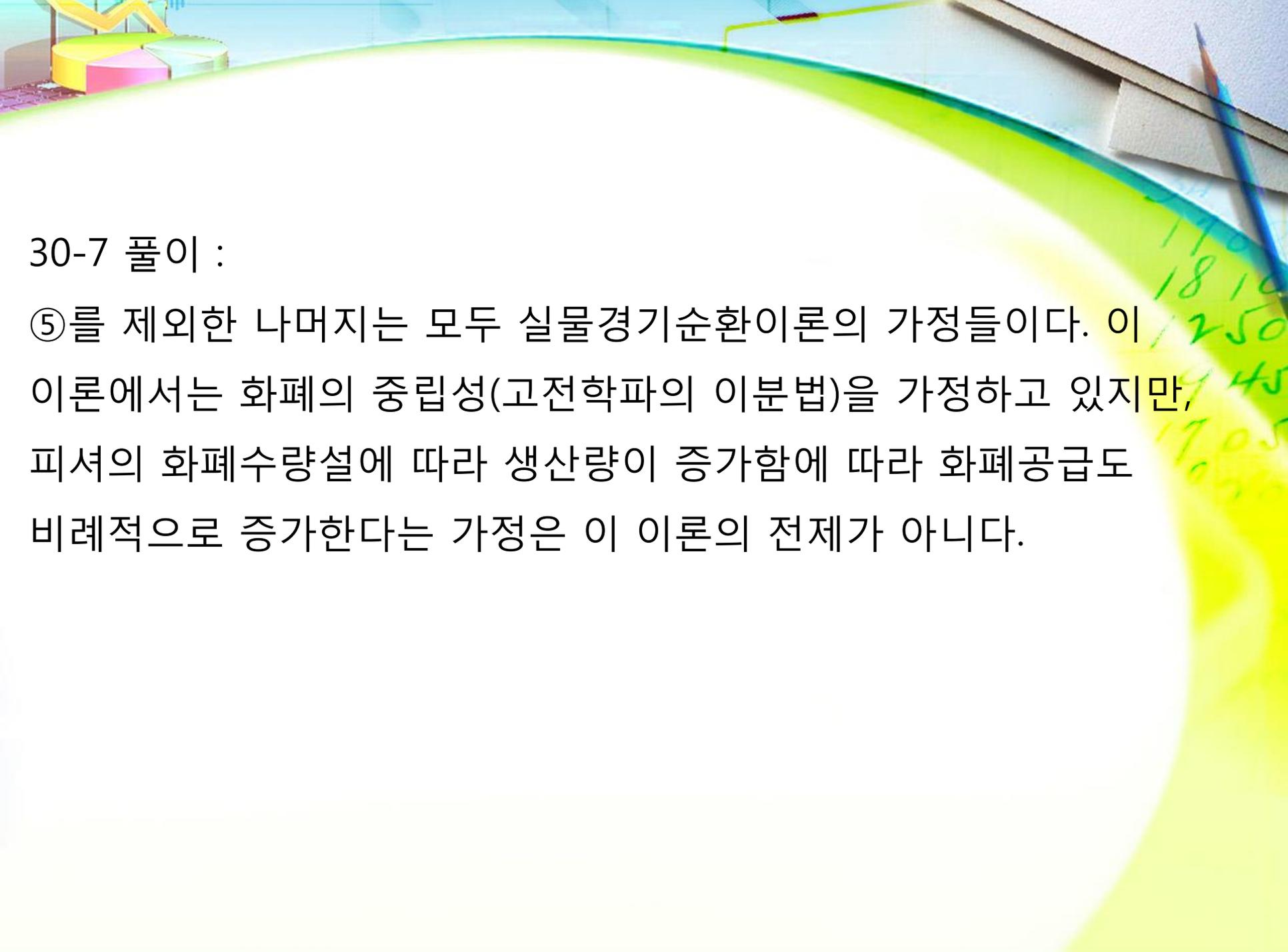
30-4 풀이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한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BSI=(50-40)+100=11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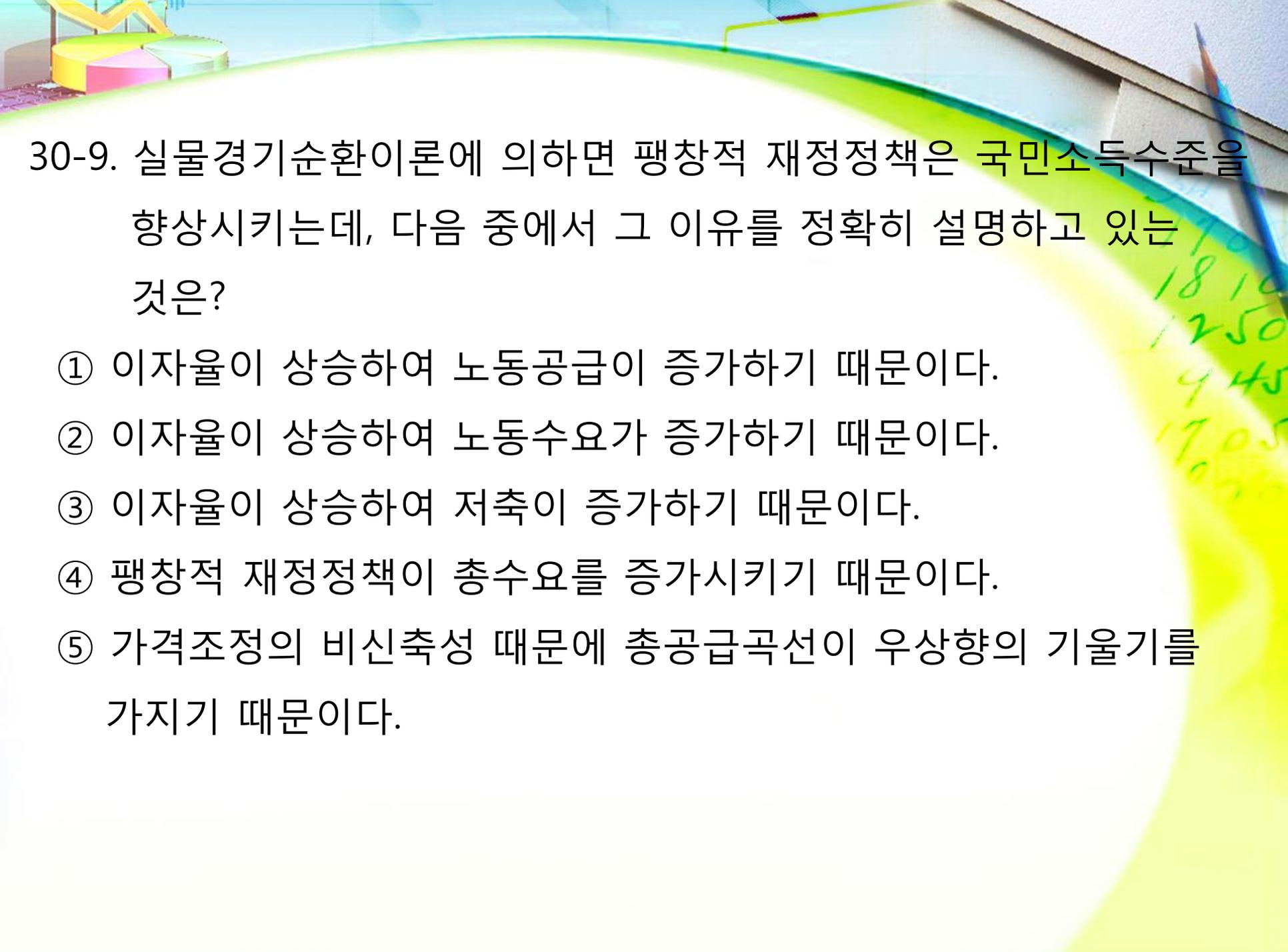
30-7. 다음 중에서 실물경기순환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의 가정이 아닌 것은?

- ① 물가가 완전히 신축적이다.
- ② 소비는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 ③ 고용수준은 노동의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 ④ 노동의 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공급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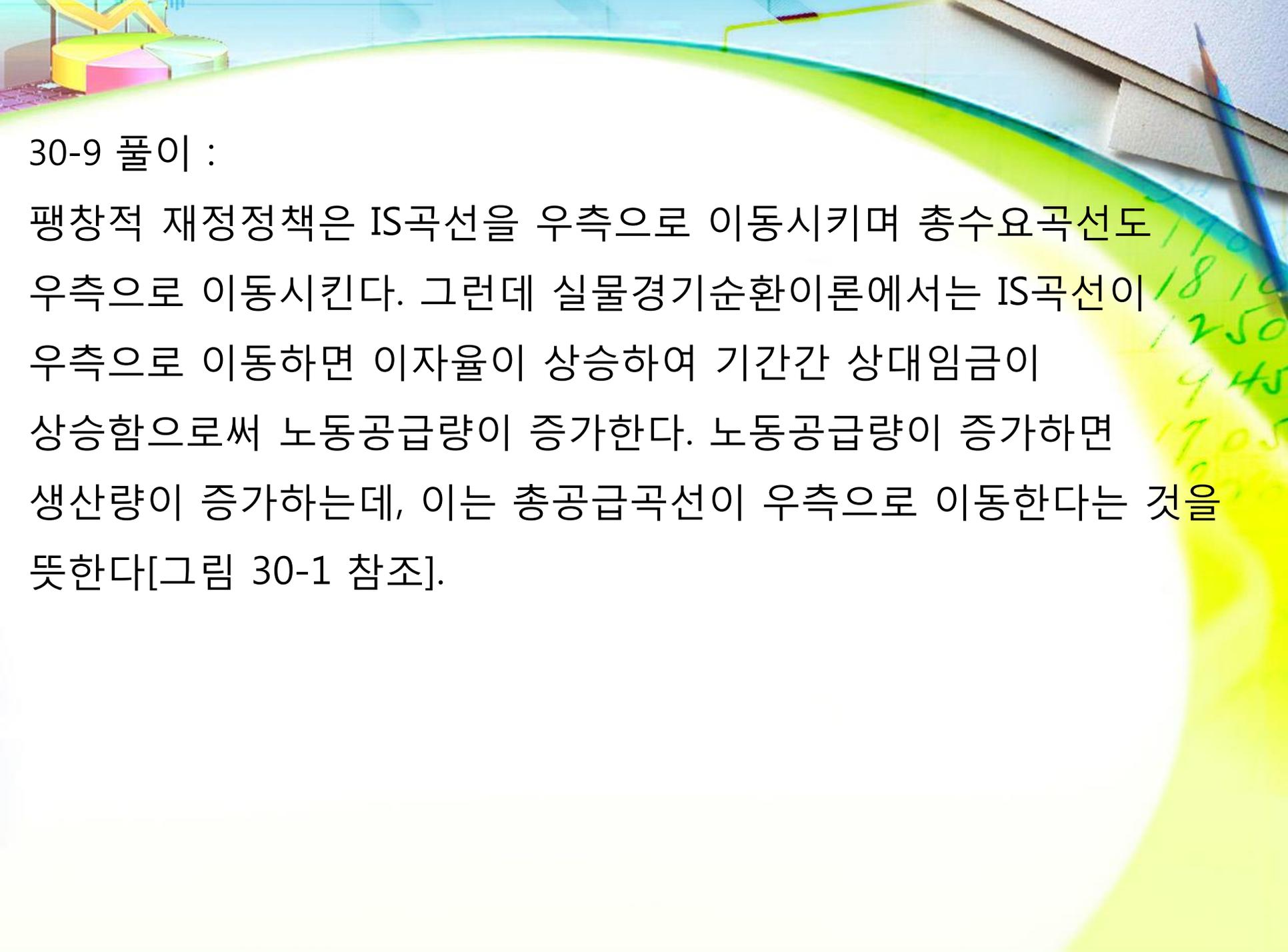
30-7 풀이 :

⑤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실물경기순환이론의 가정들이다. 이 이론에서는 화폐의 중립성(고전학파의 이분법)을 가정하고 있지만, 피셔의 화폐수량설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공급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은 이 이론의 전제가 아니다.



30-9. 실물경기순환이론에 의하면 팽창적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다음 중에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이자율이 상승하여 노동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② 이자율이 상승하여 노동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③ 이자율이 상승하여 저축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④ 팽창적 재정정책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 ⑤ 가격조정의 비신축성 때문에 총공급곡선이 우상향의 기울기를 가지기 때문이다.



30-9 풀이 :

팽창적 재정정책은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며 총수요곡선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런데 실물경기순환이론에서는 IS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기간간 상대임금이 상승함으로써 노동공급량이 증가한다. 노동공급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이는 총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뜻한다[그림 30-1 참조].

30-10. 실물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기술수준의 변화가 경기순환의 주요원인인데, 다음 보기 중에서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이차율이 하락한다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을 옳게 선택한 것은?

a. 실질임금 b. 고용수준 c.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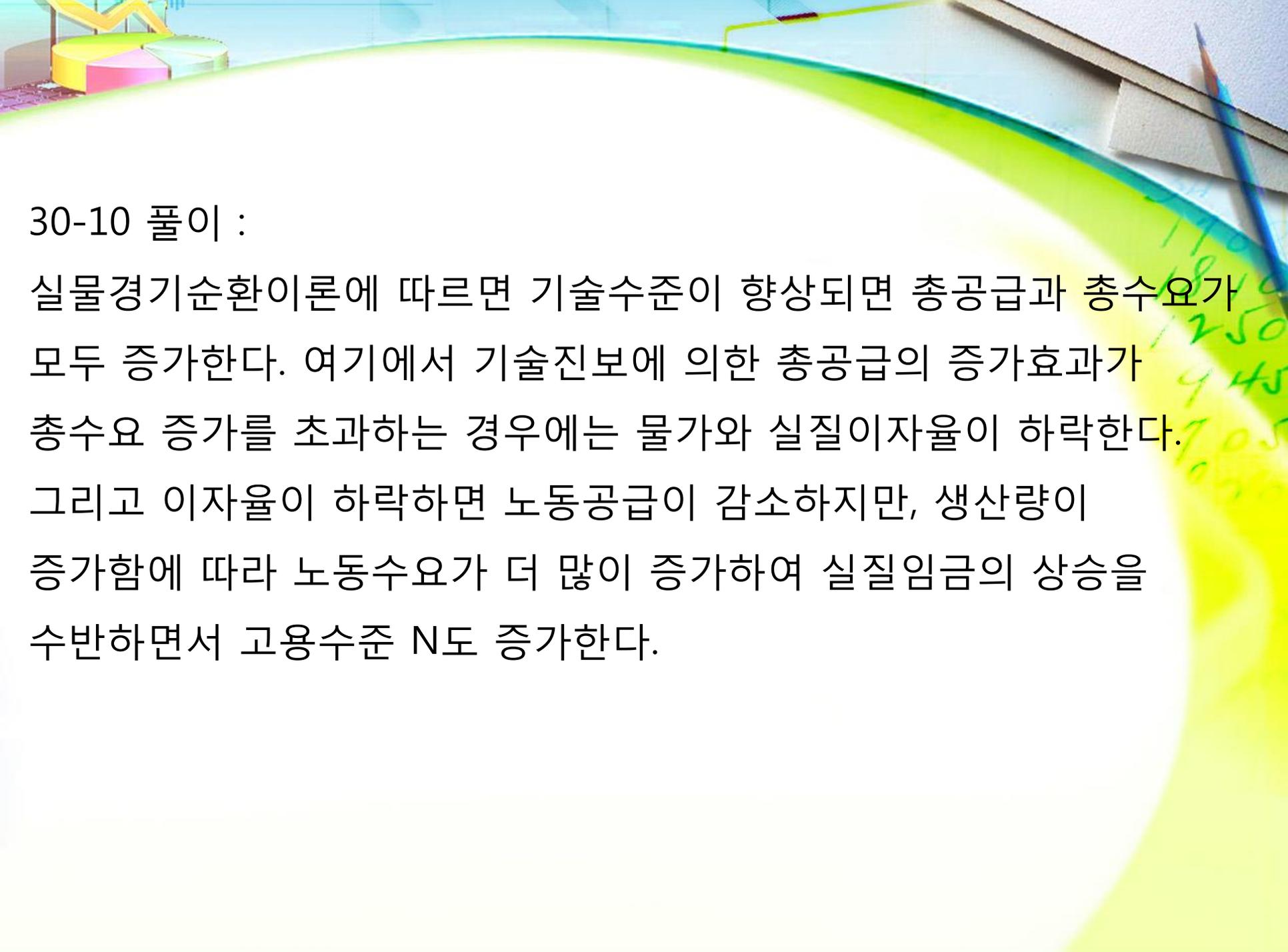
① a, b

② a, c

③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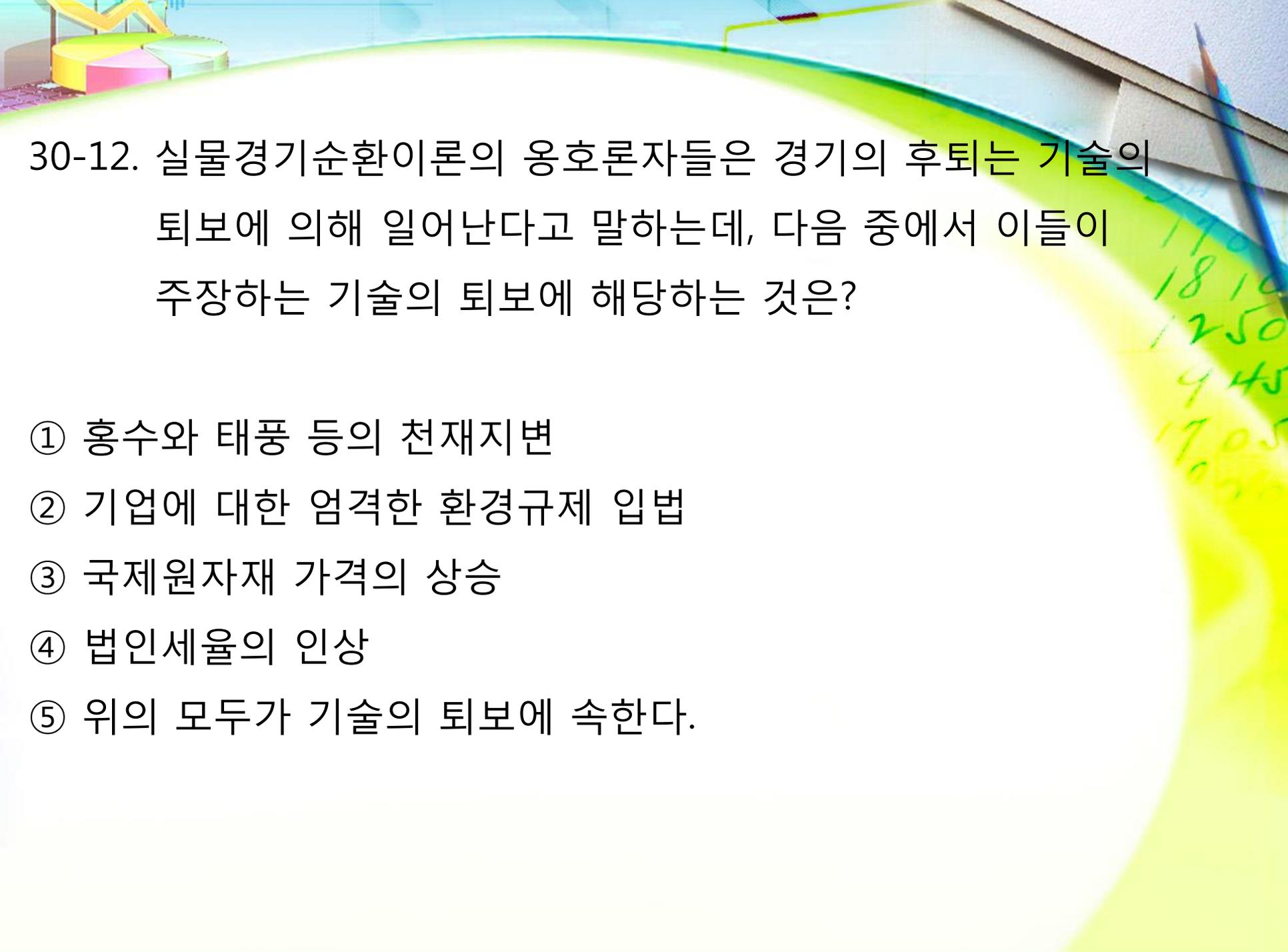
④ a

⑤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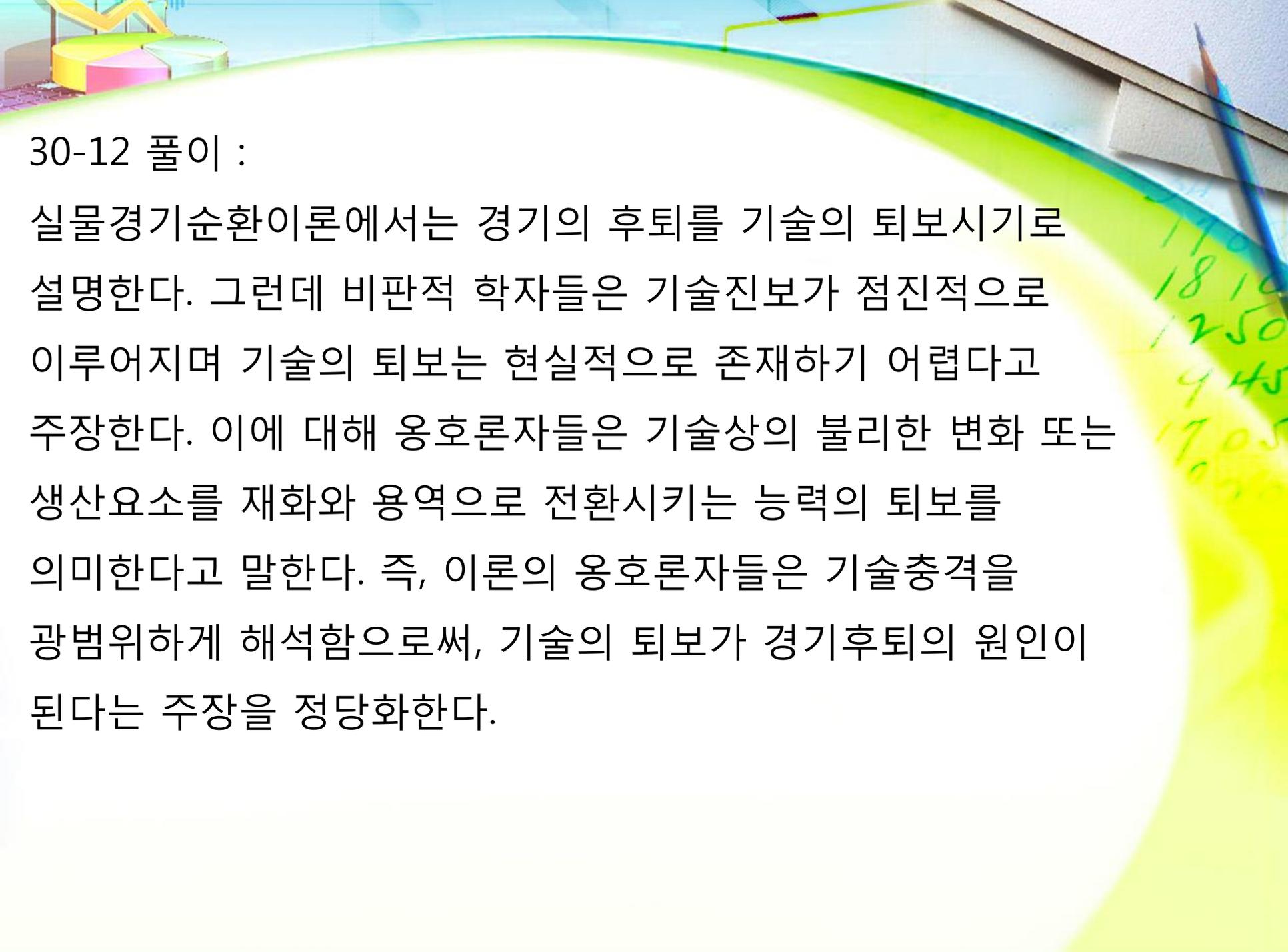
30-10 풀이 :

실물경기순환이론에 따르면 기술수준이 향상되면 총공급과 총수요가 모두 증가한다. 여기에서 기술진보에 의한 총공급의 증가효과가 총수요 증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가와 실질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지만,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여 실질임금의 상승을 수반하면서 고용수준 N 도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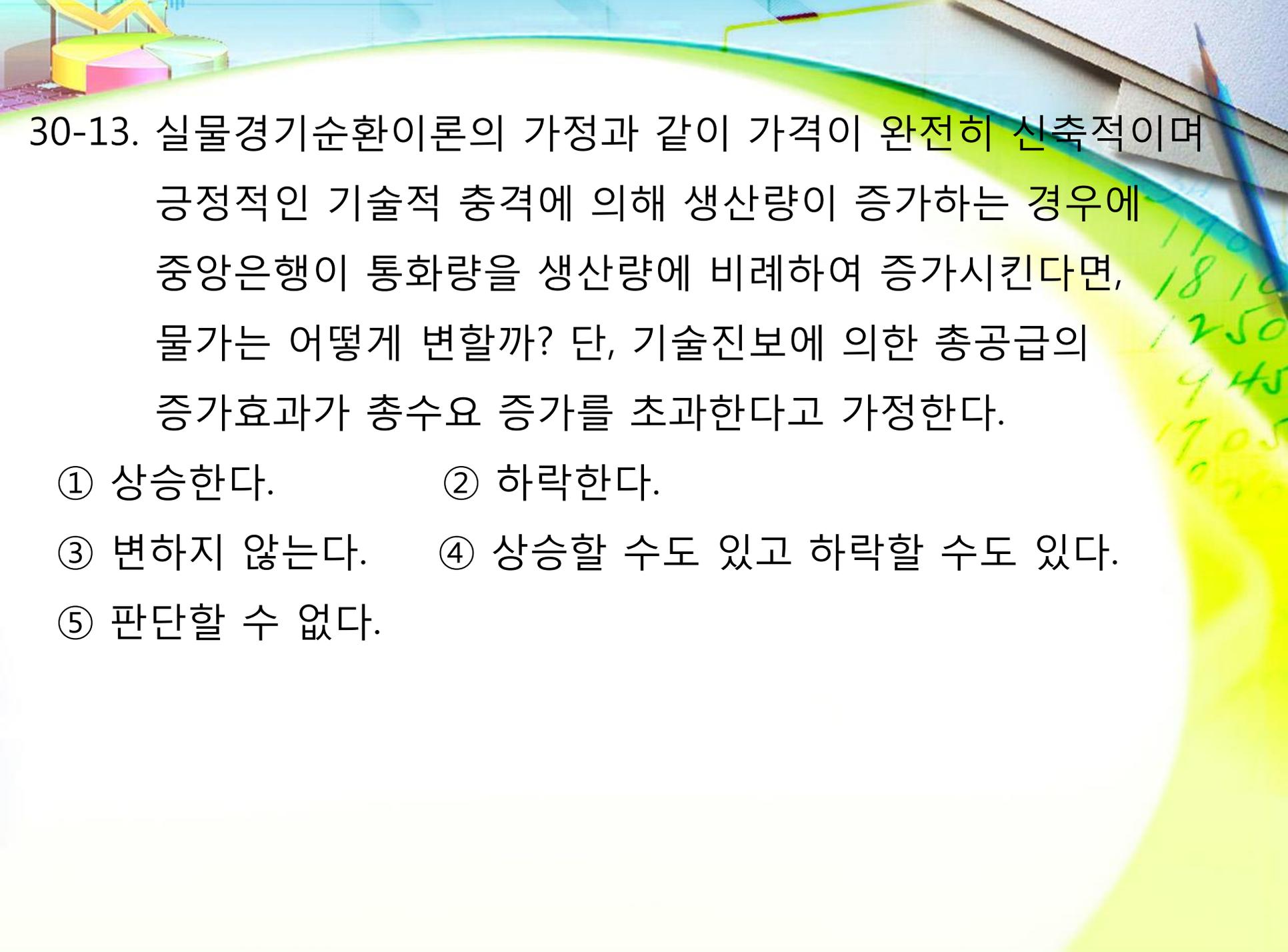
30-12. 실물경기순환이론의 옹호론자들은 경기의 후퇴는 기술의 퇴보에 의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다음 중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기술의 퇴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홍수와 태풍 등의 천재지변
- ② 기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 입법
- ③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 ④ 법인세율의 인상
- ⑤ 위의 모두가 기술의 퇴보에 속한다.



30-12 풀이 :

실물경기순환이론에서는 경기의 후퇴를 기술의 퇴보시기로 설명한다. 그런데 비판적 학자들은 기술진보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의 퇴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옹호론자들은 기술상의 불리한 변화 또는 생산요소를 재화와 용역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의 퇴보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이론의 옹호론자들은 기술충격을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기술의 퇴보가 경기후퇴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을 정당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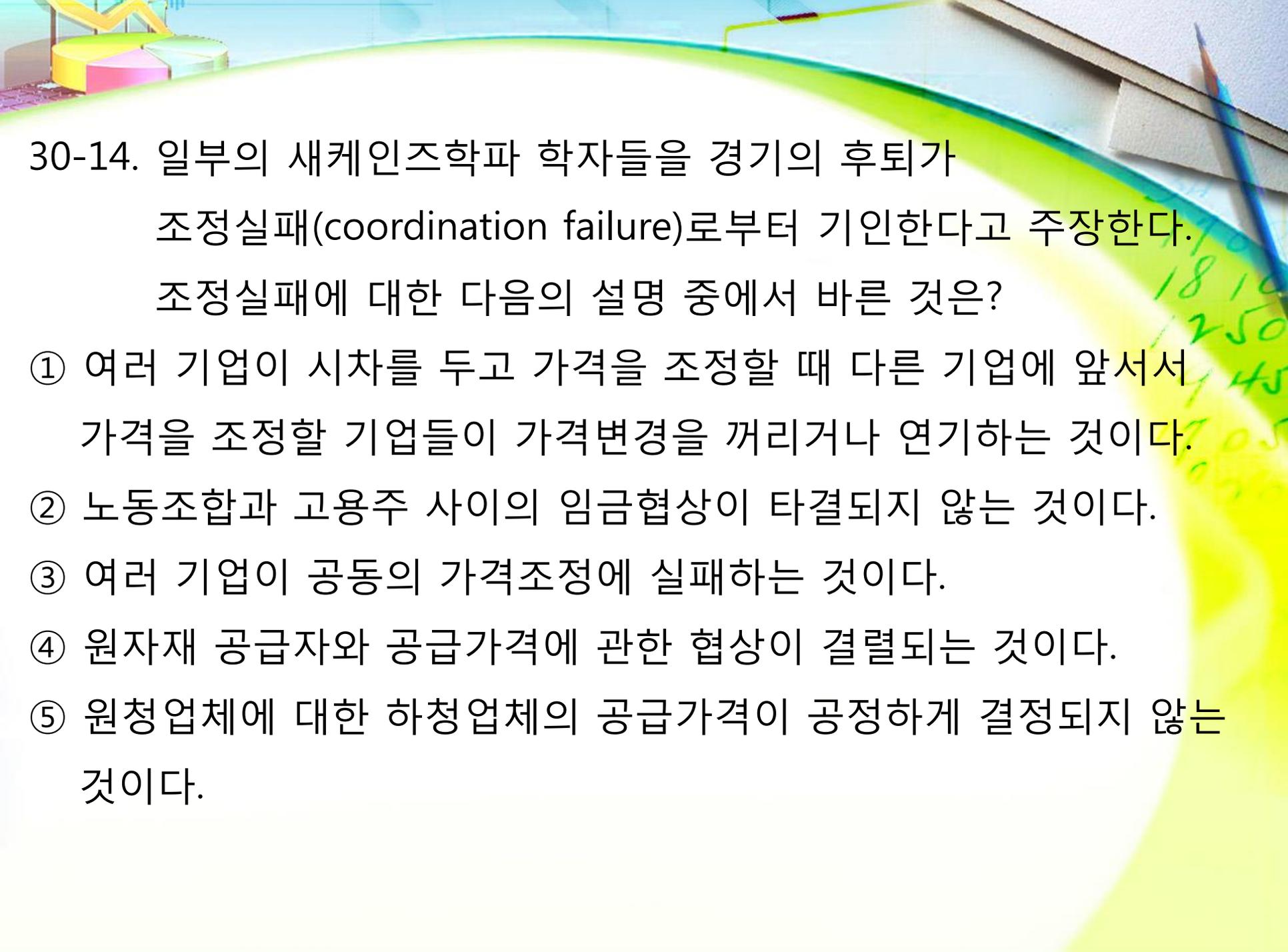


30-13. 실물경기순환이론의 가정과 같이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며 긍정적인 기술적 충격에 의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생산량에 비례하여 증가시킨다면, 물가는 어떻게 변할까? 단, 기술진보에 의한 총공급의 증가효과가 총수요 증가를 초과한다고 가정한다.

- ① 상승한다. ② 하락한다.
- ③ 변하지 않는다. ④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 ⑤ 판단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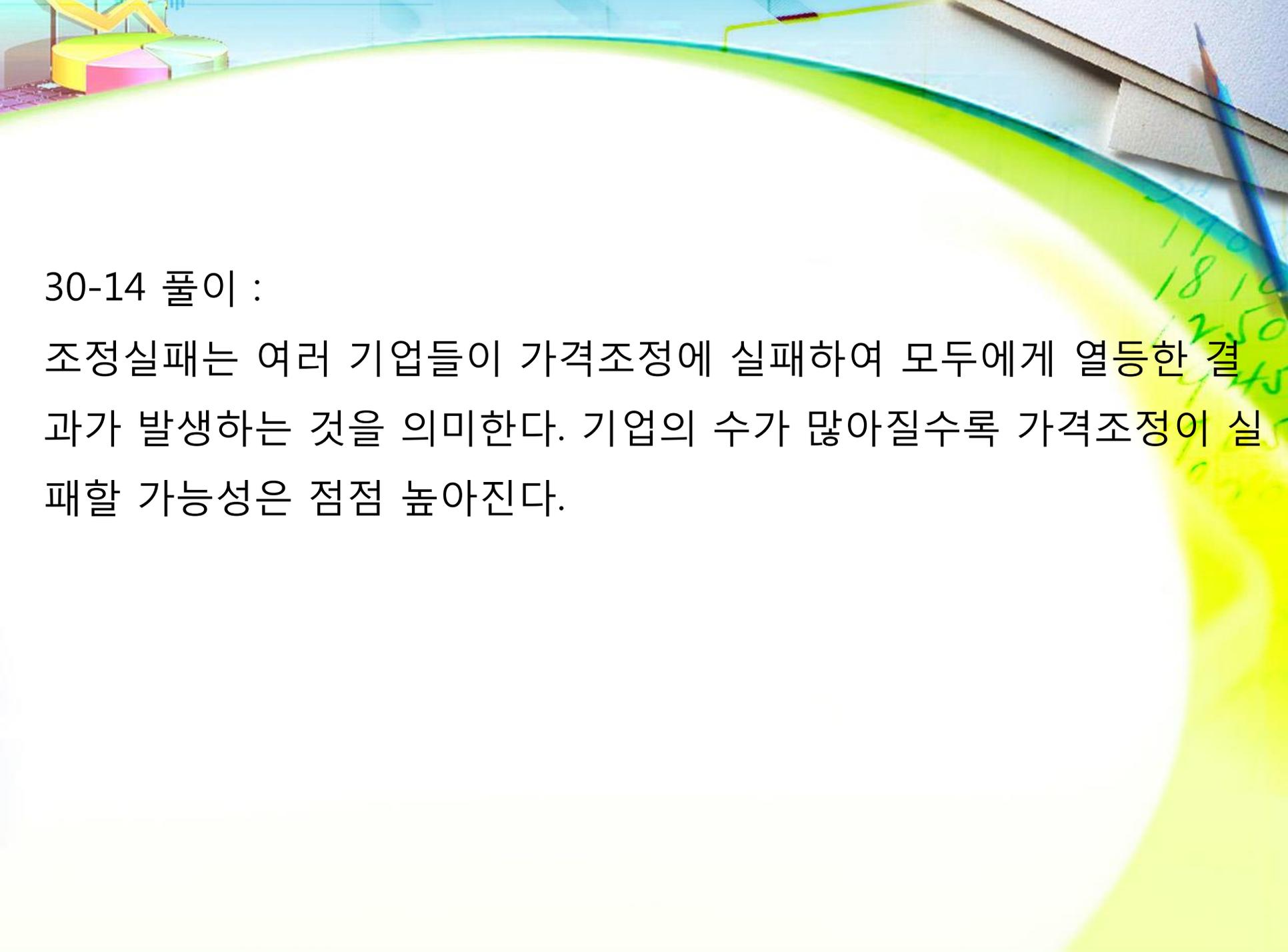
30-13 풀이 :

실물경기순환모형에서 긍정적인 기술적 충격에 의한 총공급의 증가효과가 총수요 증가를 초과한다면, 물가는 하락한다[그림 30-2 참조]. 피셔의 교환방정식 $MV=PY$ 에서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인 경우에 통화량 M 과 실질소득 Y 가 같은 비율로 증가하면, 물가 P 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통화량이 고정된다면, 기술적 충격에 의한 물가하락폭은 더 커질 것이다.



30-14. 일부의 새케인즈학파 학자들을 경기의 후퇴가 조정실패(coordination failure)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조정실패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바른 것은?

- ① 여러 기업이 시차를 두고 가격을 조정할 때 다른 기업에 앞서서 가격을 조정할 기업들이 가격변경을 꺼리거나 연기하는 것이다.
- ② 노동조합과 고용주 사이의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것이다.
- ③ 여러 기업이 공동의 가격조정에 실패하는 것이다.
- ④ 원자재 공급자와 공급가격에 관한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다.
- ⑤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공급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30-14 풀이 :

조정실패는 여러 기업들이 가격조정에 실패하여 모두에게 열등한 결과
과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수가 많아질수록 가격조정이 실패
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학습정리

- 경기변동의 정의와 특징, 종류(소순환, 주순환, 장기순환)
- 경기지표(경기종합지수(선행, 동행, 후행지수), 경기동향지수, 경기실사지수, 경기예고지표)
- 실물경기순환이론(기간간 노동대체)
- 새케인즈학파의 경기순환이론